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910 1982년 8월 25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August 25, 1982

SEP 1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교과서왜곡 수정할듯

일수상, 중공방문 앞두고 해결

(도꾜)일본이 역사교과서를 재수정할 가능성이 비쳐졌다.

스즈끼·겐꼬 일본수상은 23일 9월로 예정된 중공방문전 이 문제를 "중공이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해결짓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중공은 만일 교과서 왜곡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스즈끼의 중공방문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의 뜻을 비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즈끼수상은 "지난 전쟁중 일본이 중국, 한국및 기타 아시아국가들에 끼친 막대한 피해를 잘 알고 있다. 중공, 한국과 국교정상화 당시 공동 성명에서 명기된 일본측의 유감의 뜻이 일본교과서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일본은 보다 적절한 조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하며 또 현재 하고 있다. 내 책임하에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스즈끼수상은 지금까지 교과서사실왜곡사건에 대해 직접개입치 않고 이 문제는 외무성과 문교성간에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회피해왔다.

스즈끼수상은 그러나 일본이 어느 정도까지 후퇴할 태세인지에 관해서는 시사하지 않았다.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한국과 중국및 아시아 각국에서는 최근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수정, 일본의 침략근성을 다소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거센 반발의 물결이 일었었다.

"죄와 벌에 차별있다"

동일범죄 선고량 10배까지 달라

캐나다 판사들이 똑같은 범죄에 대해 내리는 형량이 심지어 10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연방정부의 위촉으로 판사의 형선고에 관한 연구를 주도한 가정법원의 가이·굴라드 판사는 판사에 따라 중범일수록 선고량의 차이가 심해진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연방법무성은 가정재판의 경우를 제외한 각 케이스별 형량을 밝힌 지침서를 전국의 각 판사들에게 배부한다.

사법제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새 지침서에는 지금까지 캐나다 각급 법원에서 내려진 선고내용의 원칙과 우선적으로 고려돼야할 점등을 지적했다.

굴라드판사는 "연구조사 결과는 정말 놀랄만 하다. 범죄인의 배경이나 범죄적 상황이 거의 동일한 사건을 두고 판사마다 내리는 형의 정도가 놀랍도록 다르다"고 말하고, 각 판사에 판결의 지침을 주고 개별사건마다 재량권을 허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굴라드판사는 이번 연구를 위해 전국 200명의 주법원 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며, 가장 판사별로 선고형량의 차이가 두드러진 것은 무장강도케이스였다고 말했다.

◆위니펙 민속제전에서 보인 교포여성들의 화관무. 중앙에 입은숙양이 보인다.

◆CNE 태권도대회 여자부경기.(관련기사 2면)

수잔·벨레즈 아버지 심장마비로 별세

경찰에 의해 식·칠드런병원 아기살해범으로 지목됐다 무혐의로 풀려났던 간호원 수잔·벨레즈의 아버지 제임즈·벨레즈의사(57)가 23일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온타리오주 벨르빌의 제너럴·하스피탈에서 숨진 벨레즈씨는 숨지기 16일전 첫 심장마비를 겪었었다.

식·칠드런병원 소아과의사로 있는 아들 데이빗·벨레즈씨는 아버지의 죽음이 수잔양의 살인혐의 체포, 재판으로 재촉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수잔양은 석달전 44일간의 예비청문회에서 4개의 살인혐의를 벗어났다.

최근 수잔·벨레즈는 여성잡지 챠털린(Chatelaine) 9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혐의때문에 받는 압박감은 거액의 보석금, 법적소송비, 매스콤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정신상태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었다"고 말했다.

벨레즈씨는 54년 이후 벨-빌제너럴병원에서 근무해왔으며 작년에 소아과장직을 사임했었다.

◆ 제임즈·벨레즈의사

파란눈을 감동시킨 화관무

위니펙 민속제전, 재봉사들이 주축

(위니펙-김복연지국장) 마니토바주 포크로라마위원회(Folklorama)가 주관, 매년 8월중에 실시하는 제13회 이민족 민속제전의 축제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됐다.

39개국이 참가한 이번 민속문화제전에는 한국관을 비롯, 많은 소수민족들이 그 나라의 고유문화의 소개와 춤과 노래 그리고 각종 특산물전시는 물론 고유음식까지 만들어 판매하는등 다채롭게 진행,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과 찬사를 받았다.

특별히 한국관에서는 예년에 볼수 없었던 농악과 고전무용, 합창, 부채춤, 화관무등 다채로운 향연으로 연인원 8000여명이 운집하여 매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3~4회 공연으로 가장 인기있는 민속관으로 꼽혔다.

금년도 민속제전은 한인회장 박종수씨와 총무 이하영씨의 주도아래 집단이민 온 봉제여성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성공적인 공연을 했다.

1주일간의 축제기간동안 한국관에 출연한 교포들은 다음과 같다.

◆화관무, 부채춤, 재롱춤, 독무살풀이, 농악
지도-심문숙
유현숙, 김규섭, 이명자
이의순, 김용숙, 곽영민
박선근, 이영희, 김진홍
정시옥, 김숙자, 김정숙
이병옥, 박정애, 김진숙
설정희, 황순자, 이연숙
임은숙, 조안례, 조정희
최창엽

한편 위니펙시 당국에서는 금년도 한국의 전통적인 춤이 이채로와 오는 29일 야외촬영 기록영화를 만들겠다고 제의했다.

오늘의 예금금리			
	한인신용조합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3.5%		13%
90일	14%		13.75%
180일	14.25%	14.25%	13.75%
365일	14.5%	14.5%	13.7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군산상고 패권, 재일동포 2위

봉황대기 고교야구 50팀 열전

(서울-본사)장장 18일간 총 54게임의 백구열풍을 가라앉히고 영광의 초록봉황은 군산으로 날아갔다.

〈한국일보〉 서울본사 주최 제12회 봉황대기 쟁탈 전국 고교야구의 자웅을 겨루는 지난 21일의 최종일 잠실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의 결승전에서 군산상고는 재일동포를 4:1로 격파, 첫 패권을 잡았다.

한편 결승전에 앞서 벌어진 3,4위전서는 부산고가 광주일고를 3:0으로 누르고 3위를 차지했다.

이날의 관중수는 5만여명.

총 50개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홈런은 11개, 콜드게임 16개, 1게임 최다안타는 배명·동래의 2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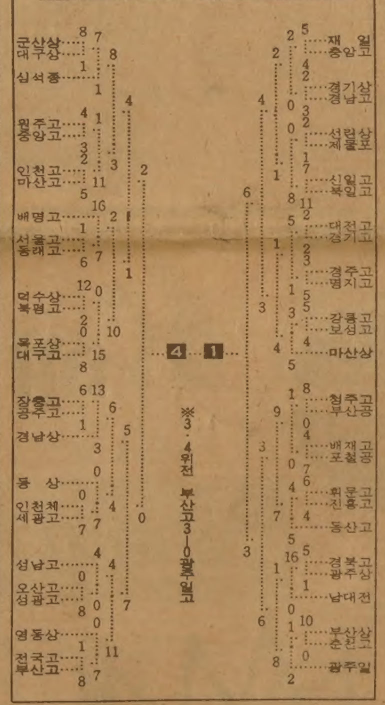
이번 대회 개인상은 아래와 같다.

◆개인상

◉최우수선수-오석환(군상-투수)

◉최우수투수-조계현(군산상)

◇12회 봉황대기 총전적



농어촌 개발촉진 법제화

도시와의 소득균형 위해

(서울23일=연합)도시와 농어촌의 소득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한국정부는 세금공제및 기타 지원책으로 농어민의 수입을 늘이는 방안을 법안화할 계획이다.

금년 가을 국회를 통과 '83년1월1일부터 시행될 이 법안에 따르면 농어촌 도시개발을 촉진시킬 각 부처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특별위원회는 지방에 공장이나 다른 시설을 설치할 경우 법적규제를 완화, 세금공제등의 혜택을 주는 것등을 논의한다.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De 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2 Carat
Diamond Cluster
Ring
— Reg. 1,000.00
— Spec. $749.95

Coin Jewelly
고급시계
이태리 수입 고급
귀금속 취급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UNPAINTED
FURNITURE
FOR SALE
CONTENTS OF FACTORY

MANY OTHER ITEMS AT SIMILAR SAVINGS
BUNK BEDS $99.95
MATTRESSES TWIN DOUBLE $49.95
★ 믿을수 없는 가격
★페인트 칠없는 나무그대로의 원제품 가구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레스토랑·사무실등에 각종비품 대량공급.
한번들려주세요.
NORTH PARK DISTRIBUTORS
3368 YONGE ST. 488-7911
(7 Blocks North of Lawrence)

각종자개제품판매
한국에서 수입된 각종 자개제품 일부를 CNE에서 전 시 판매 중이오니 관람 바랍니다. 교민들에게는 특별 할인 해 드리고 있읍니다.
본점 취급품목:
각형 TABLE
병풍(4폭, 6폭)
화대 각종 화병,
화장대, 문갑,
패물함 기타
장식품.

CNE 전시장 COLISEUM 내 EAST ANNEX
BOOTH 56 (나무조각 전시장앞)
YONG'S LINEN & GIFTS CO., LTD.
Port of East & Kang's Crafts) MAPLE LEAF VILLAGE, NIAGARA FALLS, ONT.
☎: 593-7882(CNE)
(1) 356-9155(NIAGARA FALLS)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모국방문 재미교포 밀수·외화 밀반출행위

(뉴욕지사) 금년들어 뉴욕거주 교포 3명을 포함한 재미교포 7명이 밀수품을 휴대하고 김포공항을 통과하려다 세관당국에 검거된 사실이 김포세관에 의해 밝혀졌다.

김포세관은 또 금년 7월말 현재 6명이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되었으며 이중 2명이 재미교포로 외화유출 총액은 16만3천8백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김포공항을 통해 외화를 소지하고 출국하려다 적발된 사건은 총25건이며 이중 재미교포가 관련된 것은 4건(총액 40만9천달러)이었다.

관세청 김포세관의 엄기호국장, 전영진 현장과장, 조창식 내무과장등은 지난 8월초 재미교포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재미교포들이 주로 밀수를 시도하고 있는 상품은 보석류와 VTR등 고급 전자제품 그리고 녹용, 우황청심환등 약재라고 말했다.

김포세관 내무과장 조창식씨는 밀수사건을 조사한 결과, 미국 대도시에 있는 일부 한인업소가 미국교포들에게 한국에서 비싸게 팔릴수 있는 상품을 소개하고 은밀히 포장까지 해줘 결과적으로 밀수를 조장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2백만원이상 밀수자는 일단 구속하지만 대개의 경우 벌금을 물게하고 출국시키고 있다.

한국정부는 밀수혐의로 체포된 재미교포의 재입국은 금지시켜 오다가 81년1월 전대통령의 미국방문이후 이들의 재입국을 허용하고있다.

김포세관이 밝힌 재미교포가 관련된 밀수사건은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 거주 교포 강모씨는 지난 1월17일 LA서 KAL편으로 일시 귀국하면서 밍크 반코트 7점(5천5백달러 상당)을 전기 후라이팬 포장상자에 넣어 세관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스카치 테잎으로 봉해 반입하려다 적발, 관세와 방위세 1백42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앵커리지 거주 이모씨는 지난 1월22일 생녹용6개 웅담2개(싯가 1백24만원 상당)를 주머니 속에 넣고 입국하려다 적발▲뉴욕주 밥스톤에 거주하는 이모여인은 고급 선그래스50개(싯가 1백75만원)를 커피봉지 속에 숨겨 들여오다 검거 ▲뉴욕주 서펀시의 최모씨는 3월 금목걸이3백개(싯가 1천2백20만원 상당)를 밥색 가방 속에 넣고 KAL편으로 입국하려다 체포됐다.

이밖에도 ▲철공업을 하는 뉴욕교포 김모씨는 4월13일 뉴욕 차이나타운 중국인 도매상으로부터 북경산 우황청심환 8백50개(싯가 5백만원 상당)을 금성 칼라 TV속에 숨겨 들어 오다가 적발, 검거됐다.

47명 열전, 볼링대회

우승 장인택, 김성향, 김동천부부

토론토 볼링협회(회장 정용필) 창립 2주년기념 볼링대회에서 남자부 장인택(523), 여자부 김성향(417) 혼합조 김동천씨 부부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1일 프로·텐·핀(Pro 10 Pin) 볼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47명의 선수가 출전했으나 선수들이 거의 낯선 볼링장으로 성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이날의 전적은 아래와 같다.

◆하이싱글 남자 이상열 201

　　　　여자 이호숙 160

◆남자 1등 장인택 523

　　　2등 조병준 517

　　　3등 김홍배 517

◆여자 1등 김성향 417

　　　2등 이호숙 408

　　　3등 장한살 398

◆부부(혼합)

1. 김동천 부부
2. 오상균 부부
3. 이상열 부부

◆핸디 부문

1. 김영철 638
2. 이상수 630
3. 박희우 606

볼링협회는 오는 9월3일부터 내년 5월까지 32주간 볼링리그를 시작한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거행되는 이 리그전은 32주 동안의 성적을 합산, 내년 봄에 시상한다.

한편 볼링협회는 시즌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임원진을 개선했다.

회장: 정용필
부회장: 장인택
총무: 오상균
재무: 이종현 문덕래
기획: 김동천
서기: 조규열 김종식
섭외: 최종대 이상열
경기: 박세용
홍보: 김영철 박희우
감사: 김홍배
이사장: 이상수
이사: 강치영 강준남 김종운 민경량 이봉수 이종성

◆남자1위 장인택씨가 정용필 회장으로부터 우승트로피를 수여받고 있다.

◆하이싱글 이상열씨의 투구폼.

고급관리 재산등록 내년 1월부터 실시

(서울23일=연합)한국정부는 83년1월1일부터 고급공무원의 개인재산 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총무처가 밝혔다.

총무처의 한 고위관리는 이날 내년6월1일부터 실시계획인 금융거래 실명제로 인해 관리들의 개인재산등록 실시가 지연될 것이라는 보도에 언급, 이같이 확인했다.

그러나 이 관리는 정부가 재산등록을 의무화시킬 관리들의 숫자를 제한할 것이리고 암시했다.

재산등록제에 해당될 관리들의 수는 첫단계 실시이후 계속 확대될 것이며, 최종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토론토 한국일보는 우수한 이민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하는 신문입니다.

CNE 태권도대회

북미각지서 참전, 관중5백여

지난 21일 CNE국제태권도대회에는 미국및 캐나다 전국에서 5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했다.

CNE행사중 하나로 밤7시-10시반 남쪽 산업관에서 거행된 이 대회는 500여명의 관중이 지켜보았다.

남자 5체급, 여자 2체급으로 거행된 대회에서 남자헤비급 선수권은 예상대로 몬트리얼 이종수도장의 저지·통 선수가 차지했다.

각 부문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남 자

헤비급: 저지·통(몬트리얼 이종수도장)

미들급: 피에르·기글리오티(")

웰터급: 디노·페닝스(박종수 도장)

라이트급: 아쉬리·캐스테네다(이종수도장)

페더급: 파리비·미셀(박주삼도장)

◆여 자

헤비급: 테사·마카노(박종수도장)

라이트급: 아도나·그리브스(돈·제임스도장)

신학생 모집 칼빈신학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캐나다노회 직영 칼빈신학교(교장 계화삼·토론토 소재)는 82학년도 2학기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9월11일 개강으로 신과 입학자격은 고졸이상자 세례교인이다.

문의처 : 233-2266, 244-2301 이다.

저소득층 위한 정부 생명보험제

(서울23일=연합)한국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 생명보험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보건사회부의 고위 관리가 밝혔다.

이 관리는 민간생명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최고 1백만원(미화 $1,400)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정부보험을 설치, 보험료를 낮게 책정, 저소득층 주민들의 저축정신을 양양시킬 계획이다.

이 정부 생명보험은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민간보험에 필수인 신체검사도 필요치 않으며, 보험액 청구도 전국의 우체국을 통해 가능하다.

—일본교과서 왜곡사건 ①—

우리 민족은 역사의식 빈약하다

강 신 봉(캐나다한인연합회 이사장)

◆강신봉 씨

세계적으로 파문을 던지고 있는 일본교과서왜곡사건을 읽다 보니 분통이 터진다. 우리 민족이 캐나다에서 살건 한국에서 살건 상관이 아니다. 이러한 사건의 기사를 읽고 남의 일처럼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이미 혼이 죽은 민족인 것이다.

반만년 역사의 연면함이 우리의 핏속에 흐르고 있는 터에 일본사람들의 그 간악하고 양체같은 처사에 어찌 분노가 없겠는가!

학교에서 배운 옛 역사이야기는 고사하고라도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 일본에게 당하던 아픔과 고통을 아직도 뼈가 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그러한 눈앞의 산 역사를 저희들이 잘한 짓으로 감싸려 하는 것을 볼 때에 지난 날의 저주와 경악이 되살아나 치가 떨린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2차대전이 시작되었고, 소학교에 들어가 조금 있으니 해방이 되었다. 그렇지만 내 기억 속에는 일본민족의 잔학상이 내가 죽기까지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아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농사지은 쌀은 군량미한다고 모두 공출로 빼앗아갔고, 큰형님은 보국대에 끌려갔고, 기껏해야 수수죽, 감자밥으로 연명하던 나의 유년시절, 소학교에 입학하니 미국 B-29가 날아온다고 방공호에 들어가는 것이 매일같은 연습이었고, 매주일 한번씩은 신사참배를 해야한다고 전교생이 이십리나 되는 길을 줄지어 걸어갔다 와야 했고, "반사이 반사이, 시로히 시로히"하고 일본노래 한바탕 가르치고는 학교복도에 앉혀놓고 수수이삭 통까지를 고사리같은 어린 손으로 훑으라 했고, 내 이름은 "오까모도 신뽀"이라고 창씨개명하였으며, 일본선생은 우리들에게 한국말 금지표를 10장씩 나누어 주며 학생들간에 한국말을 하면 한장씩 서로 빼앗게 하였으며, 다 빼앗긴 학생은 방과후에 청소를 시키고, 벌을 받던 일 -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내 기억에 생생한 일본치하에서의 유년생활이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다는 3.1 운동이나 내 고향 근처인 반월에서 일본인들이 예배당에 휘발유를 끼어얹고, 불을 질러 생사람을 태워 죽였다는 이야기는 해방이 되고 나서야 알았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잘 알면서도 일본순사들의 보복이 무서워서 감히 입밖에 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이 일곱살에 해방을 맞은 나에게도 이렇게 뼈아픈 사연이 많은데, 우리의 어른들이 당한 이야기야 한이 있겠는가?

유관순양을 잡아다가 쪽집게로 음모를 뽑으며 희열을 느끼던 일본인들! 악명높은 731부대에서는 수천명 생사람을 죽음의 시험대에 올려놓고, 어떤 이는 냉동기에 집어 넣어 불과 몇분만에 인간이 죽는가를 시험해 보았고, 어떤 이에게는 병균주사를 놓아 얼마나 괴롭게 아프다가 죽는가를 흥미롭게 지켜보던 일본인들! 보국대에 끌려가 소식이 없다던 우리의 형님들이 모두 이렇게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

37년전에 해방을 맞은 오늘 8월15일, 기쁨을 경축하는 날이지마는 기쁨보다는 그 죽어간 조상선배들의 괴로움을 생각하니 눈물이 흐르고 소름이 끼친다.

미국이 가져다준 8월15일, 그 기쁨만을 기억하고 경축해야 하는가? 1910년 나라를 빼앗긴 8월29일, 국치일을 기억하는 이 몇이나 되겠는가? 슬픔의 역사를 잊으려 하고, 기쁨의 역사나 기억하려는 우리들이 아닌가? 앞으로의 세대들이 잊지 말아야 할 날은 8월15일이 아니라 8월29일이어야 할 것이다.

서구에서는 히틀러가 수백만 유태인을 부르도저로 파묻어 죽였고, 동양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그러한 만행을 부려 우리의 조상들을 착취하고 죽인 것이 2차대전이었다.

전쟁이 끝난지 40년이 지났어도 유태인들은 세계방방곡곡으로 찾아다니며 히틀러의 추종자들을 잡아다가 처형하기에 바쁜데, 우리 민족은 일본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관대한 우의를 베풀었다고 그들이 우리를 관대하게 대해준 적이 있는가? 자기 부모, 자기 형제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도 일본풍에 미쳐가는 우리 세대들 - 우리 민족은 역사의식이 너무도 빈약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유교사상에 너무 빠졌고, 일본이 강점했을 때에는 친일파도 경을 치게 많더니, 해방이 되고 미국풍이 들어오니까 모두가 미국의 것은 최고라 하지 않았는가? 반만년 역사를 입으로만 자랑하고, 행동은 자기 중심을 잃어가고 있으니 한심스런 소치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역사의 원흉 히로히도는 천벌을 맞고, 사지를 찢어 없애 버려야 할 인물인데, 일본놈들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섬겨, 저렇게 영광스런 나라의 권위와 충성심을 독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자, 미국의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일본인들에게 쫓겨난 우리의 이씨황족을 본체도 아니하고, 위정자들은 자기만이 똑똑하고 자기만이 훌륭한 역사를 이끌 수 있다고 자부하였지만 어떻게 말로를 장식하였는가? (계 속)

한식, 중화요리, 화식, 캐네디안식
거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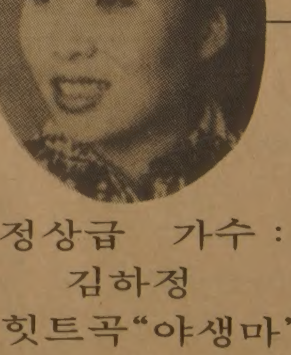
배삼룡 재 앵콜쇼

연장기간 : 8월26일(목)~28(토) 까지(3일간)

거구장 생긴 이래
최고의 인기,
최대의 인파

희극의 왕
배삼룡

배삼룡



정상급 가수 :
김하정
(힛트곡"야생마")

※오시더라도 자리가 없어 그냥 돌아 가시는 손님이 많사오니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부득이 쇼기간중에는 테이블 착지를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거구장 대표 이한영 올림

◎7,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 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 2시~새벽2시

거구장 5 BETHRIDGE RD. 742-1618

여름학교 끝나

씨알, 28명의 우등생 표창

씨알한국인학교가 7월5일부터 8월13일까지 6주간의 여름학교를 끝냈다.

6학급 110명의 학생이 참석한 씨알여름학교는 에드와드·가든에서 사생대회를, 써니부룩공원에서 운동회를 갖는외에 다운스뷰·델공원에서 28명의 우등생 표창식도 아울러 가졌다.

씨알여름학교는 2시간씩의 한국어시간과 2일에 한번씩 수영시간외에 영어, 수학,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축구등 8과목의 예능, 특수과목을 하루 2시간씩 가졌다.

한편 씨알학교는 24-27일까지 보이스카웃 캠프장에서 여름캠프를 갖는다.

◆씨알여름학교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

씨알학교에서 배운 한글로 작문실력을 과시한 이상윤군의 글을 원문 그대로 싣는다.

씨알 학교 이상윤 6반

씨알학교는 아주 재미있는 학교입니다. 씨알 학교는
여름동안 조완 래스 화교에서 아이들한테 아주 재미있게
가르쳐주십니다. 나는 여름에 씨알학교에 동생하고
왔읍니다. 나는 한글공부를 하러 왔읍니다. 씨알학교
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 씨알학교 선생님
들은 여름동안 우리를 도와 줍니다. 선생님은 경험이
많이 있읍니다. 나의 한글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은
유회자 선생님입니다. 안경쓴 우리선생님은 우리
하고 씨알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씨알학교에서 영어와 수학을 배웁니다. 나의
영어와 수학 선생님은 문경호 선생님입니다. 나는
한국의 뿌리가 있으니까, 한국말을 배워야합니다.
나는 씨알 학교를 좋아합니다. 나의 소원은 한국말을
잘하는것입니다. 나는 더커서 대학교에 갔을때
둘째의 말을 사용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할머니한테 쓸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신문을 읽고 싶읍니다. 그래서 이번여름에 씨알학교
는 저를 많이 도와주었읍니다. 왜냐하면 씨알 학교
는 신문읽는것을 많이 도와 주었읍니다.

신용조합 발간 〈운영뉴스 2호〉

단체의 장기예금, 교회의 헌금관리, 노년층의 모국방문·성지순례를 목표로 한 적립금등을 대상으로 한 〈오뚜기 정기예금〉을 최근 새로 설정한 한인신용조합은 조합원에 무료 배부하는 〈한인신용조합 운영뉴스 제2호〉를 내놓았다.

지난 7월1일 창간, 40일만인 8월10일자로 제2호를 기록한 이 뉴스레타는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이사장 한상훈씨 이름으로 발간되는 부정기 간행물로 타이프지 1장의 크기이다.

제2호는 금리가 오르면 자동적으로 이자를 올려받고 이자율이 내려도 계약이자보다는 내리지 않으며, 언제든지 손해없이 해약할 수 있는 오뚜기 정기예금에 대해 주로 설명하고 있다.

배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용조합 533-9387로 연락하도록.

미국인, 한인상가에 역침투
한글간판 거꾸로 달기도

(시카고지사)번창일로에 있는 로렌스한인밀집상가와 디반상가일부에 최근 들어 영어대신 한글간판을 부착, 한인고객 상대로 새로이 시장개척 자구책을 꾀하는 미국인 가게와 전문직 업종들이 늘어가고 있어 새로운「한인상가 역침투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비즈니스의 얼굴」이라고 할수있는 상점간판 전체를 영어 한줄없이 한글로 쓰는가하면 벽이나 쇼윈도, 심지어는 운반트럭에까지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데다가 일부는 한국인 종업원까지 고용하고있어 한인상가 특유의 상업적「게토」화가 와해되고 있는 느낌마저 주고있다.

이들의 간판및 부착내용은「직원모집」「재고정리세일」「신발팝니다」「미장원」「구두수선」「막걸리」「열쇠제작합니다」「변호사간판」「야채취급」「염가판매」「경험있는 재봉사구함」「합동 법률사무사」등 무려 15여종에 이르고 있다.

「렌타알람마」 안전서비스를 경영하고 있는 칼로스씨는 가게 위치가 한인밀집지역임을 감안, 한국고객 유치를 위해 몬트로즈에 있는 크로바간판(주인·이두만씨)에 「열쇠제작합니다」라는 복판싸인을 의뢰하여 달았는데 한글의 상하를 몰라 처음에 거꾸로 달았다가 일주일 후에 간판주인 이씨가 가르쳐줘 바로 달았다는 웃지못할 에피소드까지 남기고 있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黃도와 사나이

<55>

어떤殺人 ②

임신4개월 진단받은 그녀는 눈물만…

오빠의 뒤를 고개를 숙인채 따라가면서 그녀는 오빠의 마음씀씀이에 새삼 감동했다.

두봉은 정말 가기가 싫었다. 그러나 누이를 혼자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자진해서 앞장서 산부인과를 찾아가고있는 것이었다. 절박한 상황에 몰려있는 누이가 임신중절수술까지 하게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수없다. 그걸 알면서 혼자 내버려둘 수는 없다.

멀지 않은곳에 산부인과 병원이 하나 있었다. 대낮에 찾아든다는 것이 좀 멋쩍었지만 지금 그런 것을 따지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다.

두봉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문자는 진찰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간호원이 시키는대로 진찰대 위로 올라가 천장을 보고 드러누웠다.

『다리를 벌려요.』

그녀는 치욕을 느끼면서 다리를 힘껏 벌렸다. 그리고 눈을감았다. 의사가 들어오는 기척이 났다. 보나마나 임신일 것이다. 매달 있어야할것이없었고 입덧까지 하지 않았는가. 의사가 손가락으로 촉진을 한다. 어금니를 깨물며 죽은듯이 누워있었다.

『임신인데요.』

진찰을 끝낸 의사의 덤덤한 목소리에 그녀는 재심한 충격을 느꼈다. 예상하고있던 일인데도 막상 그런 진단이 나오자 정신을 차릴수가 없었다.

『몇개월인가요?』

숨을죽이고 가만히 물었다.

『4개월입니다.』

그녀는 대기실로 나와 오빠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표정이 모든것을 말해주고 있었기때문에 그는 굳이 물으려 하지 않았다.

『4개월이래요.』

대기실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두봉은 피우고 있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끄면서

『기다리고 있을께 끝내고 와』

하고 말했다.

문자는 아무 말없이 한참동안 앉아있다가 입술을 깨물면서 일어섰다. 그리고 오빠를 내려다보았다.

『회사에 들어가보셔야죠.』

『괜찮아.』

그는 여동생을 보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여동생이 돌아서서 걸어갈 때에야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눈여겨 보았다. 그 모습이 그렇게 측은할수가 없었다.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암소 같았다. 불쌍한 것 같으니! 심사가 사나와진 그는 가만히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일어서서 복도를 왔다갔다 했다.

"모세(毛世) — 그놈은 어떤 놈일까. 어떻게 생긴 놈일까. 어떤 놈이기에 내 누이를 저지경으로 만들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계속 거액을 뜯어가는 것일까. 흡혈귀 같은 놈!」그는 분노했다.

마니 격노했다." 가만 두지 않을테다!」그는 구두끝으로 벽을찼다. 모가지를 비틀어 버려야지. 어떻든 놈을 만나야한다. 만나야 무슨수라도 쓸수가 있다.

문자는 원한에 사무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두었다. 그녀는 전율했다. 누구의 씨이든 죄없는 아기하나가 세상에 태어나보지도 못한채 살해되었다.

朴男 그림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전문.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 243-9544 1391 WESTON RD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三國志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한인양로원건립추진위원회

WALK-A-THON (보행마라톤)

불과 10여년 이민역사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크게 성장한 한인사회는 "우리 부모는 우리가 모신다"는 전통적인 우리의 미덕을 이 사회에 보여주는 과업에 착수할 때를 맞았읍니다.

현재 토론토에는 2천명에 달하는 노인분들이 있고 이중 상당수가 여러 너싱홈(Nursing Home)에서 음식과 언어에 고통을 당하고 외로움에 시달리며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읍니다.

앞으로 몇년후에는 이런곳에서 여생을 보낼 분들이 또 얼마나 많겠읍니까? 이같은 현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한인전용 양로원 건립을 계획하고 모금을 위해 보행 마라톤(Walk-A-Thon)을 갖고자 하오니 많이 참여하시고 도와주시면 큰 도움 되겠읍니다.

▲때: 1982년 10월2일(토요일) 아침9시 30분
▲곳: 써니부룩 공원 축구장(Eglinton×Leslie St.)
▲참가신청 배부처: (1)양로원 건립 위원회
나상선 851-5735, 송인문 881-5590 이학현 463-6334, 최상수 656-0867
(2)한인 YMCA 536-1166(Mr. Kim) (3)한국일보사 533-2361
(4)민중신문 537-3473 (5)코리언저널 757-8000

대회고문 : 이규현 주 캐나다 한국대사 이상훈 토론토 총영사
HON. L. GROSSMAN 온타리오주 보건부장관.
HON. F. DREA 온타리오주 사회부장관
대 회 장 : 박인순 토론토 한인회장
진행위원장 : 천중환 한인 양로원 건립 위원장
진행위원 (무순) : 김창열 차선겸 유영갑(R)송인문 조덕남 최동주 나상선 강준남 한승권 이학현 유영갑 박경태 김명규 이병권 나영삼 유영린 심태섭 송남성 신영식 최상수 김인환 장연탁 김이열
후원단체 (무순) : 토론토총영사관·한인회·한국노년회·캐나다한국외환은행·온타리오 실업인협회·재캐나다대한 체육회·코리아타운 번영회·동우회·한인YMCA 와이즈맨클럽·라이온즈클럽·간호협회·한인교역자회·무역인협회·한인골프협회·벡커경영인협회·맥스경영인협회·한일은행·한인신용조합·대한부인회·조흥은행·한일은행·한인신용조합· ·조흥은행·한국일보·민중신문·코리안저널

한인양로원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위원장 천중환

Korean Senior Citizens Home Development Society
6042 Paddle Road, Mississauga, Ontario Phone : (416)826-6664

資源개발 참여 協議

어젯밤 韓·나이지리아 2차頂上회담

重化學·건설·農業분야 經濟각료들 具體논의

全大統領 내일上午 共同성명 가봉向發

【라고스=尹國炳특파원】 나이지리아 방문 이틀째를 맞은 全斗煥대통령은 20일하오(현지시간) 대통령궁에서 샤가리대통령과 제2차 單獨頂上회담을 갖고 양국의 經濟현안을 숙의 협의했다.

양국元首는 이날 2차頂上회담에서 나이지리아의 자원과 우리개발경험의 교류를 통한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증진문제를 각분야별로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양국頂上은 이자리에서 81년부터 시작된 나이지리아의 제4차 국가개발5개년計劃과 관련,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건설협력방안과 重化學부문의 육성계획에 대한 자본및 기술협력방안등도 협의한다.

또 나이지리아가 당면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있는 식량증산 계획에 관한 협력을위해 농업기술등력의 육성방안등도 협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이 끝난뒤 양국의 국가원수가 합의한 기본원칙에 따라 한국의 공식수행원과 나이지리아의 관계각료들은 閣僚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경협실천방안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李範錫외무, [illegible] 상공장관, 姜仁熙농수산차관, 崔東奎동자부차관, 李寬永건설차관등은 2차정상회담에 앞서 나이지리아의 관계장관들과 소관분야별로 협의를 가졌다.

全대통령내외는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상오9시10분(한국시간 20일 하오5시10분) 라고스시내에 있는 無名勇士탑을 참배했다.

[illegible]의 안내로 무명용사탑에 도착한 全대통령내외는 [illegible] 내무상과 카리엘 近衛隊長의 영접을 받고 근위대를 사열한뒤 무명용사탑에 헌화했다.

全대통령내외는 이어 국립박물관에 들러 아런지관장의 안내로 약30분간 박물관을 관람한뒤 방명록에 서명했다.

全대통령내외는 이날낮 林東源대사가 교민들을위해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 교민들을 격려했다.

이에앞서 나이지리아 공식방문에 들어간 全대통령은 도착첫날인 19일하오5시20분(한국시간 20일새벽1시20분) 나이지리아 대통령궁에서 샤가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약 1시간동안 제1차 韓·나이지리아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공동관심사에대해협의했다.

양국원수는 이날 한국의 [illegible]등 수행원들과 아우두 외상등 나이지리아 고위관계관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확대회담을 가진데이어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독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단독회담이 진행되는동안 兩國각료들은 별도로 각료회담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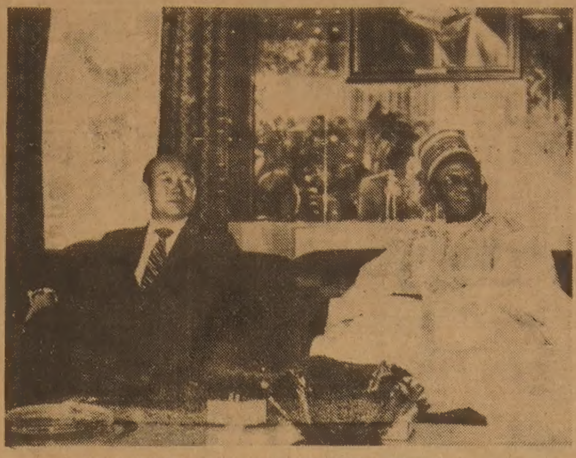
兩國원수는 이날 회담에서 △韓半島를 포함한 東北亞정세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한 국제정세△개발도상국간의 긴밀한 협력문제△경제문제를 중심으로한 兩國간의 현안에 대해 광범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는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한 大國이라는 점에서 나이지리아의 막대한 잠재력과 한국의 개발경험을 연결하여 상호 협력해 나가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된것으로 알려졌다.

科學기술 협정締結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간의 경제과학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 20일 라고스에서 李範錫외무장관과 오야그볼라 국가企劃相간에 서명됐다고 이날하오 외무부가 발표했다.

全대통령은 22일상오 샤가리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발표한뒤 3泊4일간의 나이지리아방문을 마치고 세번째 방문국인 가봉으로 떠난다.



◇ 全斗煥대통령과 샤가리 나이지리아대통령이 單獨會談하고 있다. 【라고스 (나이지리아) 19일 [illegible]=聯合】

"總通貨늘어 인플레 우려없나"

질문 外貨·재산해외도피와 저축감소 對策은

답변 未成年者 8백만원以上 資金출처조사

어제 財務委、7·3補完策등 집중추궁

국회는 20일 재무위를 열고 姜慶植재무장관으로부터 6·28및 7·3경제조치와 그補完策등에 관해 보고를 받은뒤 이들조치가 나오게된 배경과 보완책, 앞으로의 실천방안등에 관해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밤늦게까지계속된 회의에서 鄭順乾, 鄭宗澤, [illegible](이상民正) 金台植, 金在[illegible](이상民韓) 朴完奎(이상民韓) 李[illegible](국민) 李鍾옥의원(의정) 등이 질의에나섰는데 民正黨의원들은 6·28金利인하조치를 집중추궁 『금리인하로 기업체에 연간 1兆원이상의 利子혜택을 주는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보는 중산층이하의 저축예금자에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인가。外貨및 재산의 해외도피방지책과 되자유치의 대책은 무엇인가』고 묻고 일반저축의 감소대책과 만성적 不實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을줌으로써 생기는 산업合理化작업의 불균형문제를 추궁했다.

이들은 이어 ▲이자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시기까지 소액주주의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할 용의는 없는가▲우량기업체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자금지원범위및 절차는 무엇인가▲최근의 총통화량이 늘고 財政정책의 정상궤도를 벗어나고있다고는 생각지 않는가고 물었다.

이어 民韓·[illegible]議政同友會의원들은▲특히 7·3조치가 소수관료들에 의해 국민여론을 생각지않고 만들어진것으로 立案者의 경질을 밝힐것▲民正黨의 보완책은 實名制의 근본취지를 換骨奪胎한 것으로 再修正할 용의는 없는가▲7·3조치후 金과 암달러시세가 오르고 골프장멤버십 등회원권에 프리미엄이오르는 등 환물심리가 높아지고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도시서민을위한 소득세 [illegible] 기초공제 [illegible]

이들은 또 ▲6·28조치가 경기부양을위한 단기대책이라면 7·3방안은 反경기대책이 아닌가 ▲低금리정책과 상충되는 저축증대방안은 무엇인가▲預·積金의 비밀보장법이있는 제도하에서 實名거래가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밖에 李聖秀의원(국민)은 『7·3조치는 기본전제의 왜곡, 사회수용태세의 불비, 실효성의 결여, 경제 사회적 여건, 정치·법률적 오류등을 범하고있다고 지적, 7·3조치의 전면실시 보류를 촉구했다.

姜재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無記名 예금및有價증권에 대한 출처조사 不問조치와 過徵金5% 부과면제조치에서 8백만원이하의 未成年者명의로 된것은 제외할것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하고 『오는9월 9일이나 10일쯤 시중은행 민영화의 株式매매공고가 있을예정이며 이번시중은행 민영화에 개인또는 법인의 은행주식소유 상한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이어 『7·3조치에따른 실명거래제는 시행해나가되 구체적내용은 보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에 따라 白紙化된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民正黨과의 협의과정에서 달라진것은 내년6월말까지 실명화하는 예금등에관해서 過徵을 하지않는다는것 뿐이며 이는 실명화촉진을위해필요하다고본다』고 밝혔다.

姜장관은 『종합소득合算制를 제외한것은 실명거래제와 종합거래합산을 할경우 혼란이 우려되기때문』 이라면서 『그러나 實名거래제는 종합소득합산을 근거로 하기때문에 시간을두고 시정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81년말현재 記名化된 은행예금口座는 전체 3천3백50만구좌중 99·97%인 17조8천6백억이며 무기명예금은 0·03%(9천9백34구좌) 2천5백19억원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기명예금도 예금주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지는 알수없다』고 말했다.

姜장관은 『앞으로의 通貨관리는 종래와달리 신축성있게 운영하여 인플레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現代建設 公開추궁

姜장관은 또 現代건설이 금년도 하반기중 기업공개를 하겠다는 서약을 재무부에 보내고도 지금까지 이를 이행치 않는것은 국가公權力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니냐는 야당의원들의 질의에대해 『현재 現代건설은 기업공개에따른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중인것으로 알고있고 정부는 기업이 자진해서공개하도록한다는 정책기조밑에 계속노력중이라고말했다.

84년 교과서再修正

日文部省案 내년엔 敎師지침서만 加筆

【東京20日=東亞特派員】 스즈끼일본수상은 23일 기자회견을통해 교과서검정 문제에관해 번진 한국과의 외교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교과서에 반영한다는점을 강조한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왜곡부분을 재수정할것이라는 입장을표명, 수습할 방침이다.

스즈끼수상은 일본정부의 견해형식으로 ①일본의 과거행위가 한국과 중공등 아시아국가에 손해를 끼친점에 대해 반성하고 ②이 반성의 자각은 韓·日공동코뮤니케와 日·中共공동성명에서 표명된바있으며 그정신은 불변하고 ③이런인식을 학교교육과 교과서에반영키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밝힐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교과서의 왜곡부분에대해 재수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는26일 사쿠라우찌외상이 파키스탄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미야자와(宮澤喜一)관방장관으로 하여금 최종수습방안을 발표, 일괄타결할 방침이다.

外務省과 文部省이 마련중인 수습방안의 골자는 ①이미 검정이 끝난 83년도사용 교과서에 대해서는 수정하지않으며 ②그대신 검정과 조치로서 교사용지도서의 내용을 한국측이 지적한데 따라 加筆수정하고 ③84년부터 사용할 교과서에 대한 검정은 문제가 된 대목을 재수정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봄베이市 계엄령

【봄베이·뉴델리19日AP·聯合】 인도서부 봄베이市에서 18일 발생한 경찰관폭동은 19일 강력한 [illegible] 폭동이 [illegible] 시위원에서 계속되어 긴급출동한 폭동진압보안군이 발포, 최소한 1명이 죽고 4명이 부상함으로써 사상자는 사망5명, 부상1백여명으로 늘어났다.

봄베이시 당국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경찰관일부 섬유노동자들이 18일 하루종일 소요를 일으키자 당국은 19일 봄베이市 소요지역에 계엄령을 내리고 폭동에 가담하지 않은 경찰관과 공무부대및 일반군으로 구성된 보안군1만5천명을 투입했다.

日軍中將이 強姦살인示範

南京학살 지휘, 百명죽이면 施賞도

【홍콩19日=聯合】 「南京의 도살자」라는 악명을 남긴 일본제국군의 華中파견군 제6사단장 다니·도시오(谷壽夫)중장은 南京학살을 지휘했을뿐만 아니라 직접 대로상에서 살인및 강간시범을 보였다고 중공 당기관지 人民日報가 18일자에서 보도했다.

1937년12월12일 華中파견군사령관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 휘하의 4개사단중 선봉대로 南京에 입성한 제6사단의 군인들은 다니의 명령에 따라 南京입구인 中華門으로부터 시가지에 이르기까지 살인·방화·강간을 닥치는 대로 자행했고 다니중장자신도 10여명이상의 중국여인들을 욕보였으며 이같은 사실이 전후 『南京戰犯재판기록』에서 드러났다고 인민일보는 밝혔다.

또 다니는 병사들에게 「살인콘테스트」를 시켜 중국인 1백명을 먼저 살해한 자에게는 상품으로 술한병을 주기로 약속했고, 「살인경기」는 뒤로 장교들이 시가지를 다니면서 죽인숫자를 늘여 치는대로 목을 자르고 이 장교들의 뒤에는 사병들이 따라다니면서 잘린 목을 자른 죽은인들의 머리를 헤아리는 방식으로 우승자를 결정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大學祝祭·시험 放學중에 실시"

李문교、전국總學長들에 당부

勉學해치는 騷擾막게

문교부는 내년부터 대학의 축제등 각종행사를 방학중에 실시토록하고 경우에따라 시험도 방학기간중에 치를수있도록 할방침이다.

李奎浩문교장관은 20일 서울 世宗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 대학 총·학장회의에서 『어떤 구실이나 명분으로도 면학분위기를 저해할수 없으며 대학의 가장 큰 과제는 강의와 수업』이라고 강조하고 『내년부터 각대학은 여러가지 행사나 축제, 경우에따라서는 시험까지도 방학을이용할수있도록 학사일정을 계획』할것을 당부했다.

대학의 2학기개학에 앞서 학생지도와 학사문제를 협의하기위해 모인 전국총·학장회의에서 이같이밝힌 李장관은 『아직도 학기도중 수업에 지장을주는 행사와 학기말이나 중간시험이 다가오면 내리 휴강하는 사례가많다』고 지적, 『학기마다 축제를 며칠씩 계속하는사례는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李장관이 밝힌 문교부의이같은 방침은 축제나 행사가 때때로 소요의 계기가돼 면학분위기를해치기때문이다.

社會漫評

굴을파고 들어앉은걸 보니 長期戰을…

일시歸國 在外국민 新旅券 更新소지를

외무부는 20일 在외국민중 舊旅券을소지하고 일시귀국한자는 新旅券으로 更新하거나 긴급여행증(TC)을 발급받지 않는한 출국할수없다고 발표했다.

地平線

우리나라는 山川이 아름답다。名山이 서로 뽐내기라도 하듯 우뚝 우뚝 솟았다。시원한 강물이 몸의 혈관처럼 힘차게 뻗으며 물결친다。그 한줄기、분단의 휴전선을 넘어 황해도엔 예성강이 조용히 흐른다。彦眞山의 물줄기가 마치 소풍이라도 떠나는 어린이들처럼 황해를 향해 내닫는다。이 강물이 新溪·南川을 지나 경기도와의 境界에서 바다에 합류한다。한구를 따라 내려오면 강화도에 와 닿는다。예성강은 지금도 거침 없이、자유롭게 흐르고있다。그 「자유의 流水」를 타고 또 한명의 북한 동포가 자유의 땅을 찾아왔다。▼민간인의 탈출·귀순은 올들어 두번째다。지난 1월초 중부전선에서 북한 주민이 死線을 뚫고 넘어왔다。폭설과 아픔을 이용、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탈출했다。두 북한주민은 북에서 이른바 「비당원」이었다。극심한 차별대우와 견디기 어려운 빈곤이 그의 목숨을 걸게 한것이다。비인간적 생활이며 생명보다 귀한것이 자유임을 그는 깊이 깨달았었다。자유는 생명을 버릴수도 있을만큼 위대한 가치가 있다。▼계급이 없는 공산주의를 떠들어대고 있는 북한이 철저한 계급사회임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북한주민 전체가 성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핵심계층 28%、동요계층 45%、적대계층이 27%다。1월에 탈출한 귀순자는 이 계급사회의 실정을 더 자세히 10급으로 분석해 주었다。①혁명열사 ②혁명가 ③전사자및 명예군인 ④우수당원 ⑤일반당원 ⑥보통계층 ⑦남한 출신 ⑧전과자 ⑨6·25월남자가족 ⑩국군 협조자로 세분 된다。▼북괴는 적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한다。10만5천여명이 갇힌 북한의 「수용소군도」가 그것을 입증해준다。또 다른 귀순자는 증언한다。[illegible] 사상범들은 결혼도 출산도 금지당한다。외관만 인간이지 짐승과 다를것이 없다는 생각이 떠오른다。▼플래스틱 통에 몸을 싣고 예성강을 흘러온 북한의 농장원 이헌주군의 「북한폭로」가 또 어떤 생생한 실정을 들려 줄지 궁금하다。계급적 차별과 굶주림으로 자살까지 기도했던 「극한상황」이 새삼 소름끼친다。20일 판문점에서 북한 강에서 표류한 북한 민간인 시체를 저들에게 넘겨 주었다。「탈출과 인계」의 갈림이 人道와 非人道의 교차를 실감케 한다。

한국일보

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나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제일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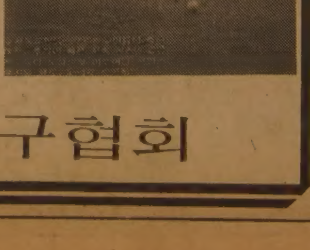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제63회 전국체육대회
축구선수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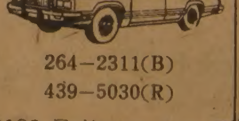
재 캐나다 한인축구 협회는 마산서 거행되는 전국체육대회에 파견할 축구선수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참가예정일 : 1982년10월 2째주와3째주
인원 : 15명
자격 : 1. 18세 이상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유자
2. 경비에 구애받지 않는자 (약간의 보조가 있을 예정)
3. 각종 축구대회에 출전하고 공인되는자
마감 : 1982년9월5일
연락처 : 박원모 922－2127
권성웅 752－6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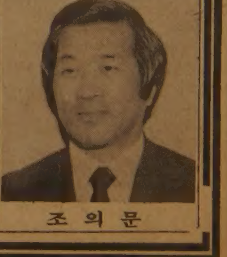


재캐나다 한인축구협회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약속의 땅「검은大陸」에 한국붐

=幕오른 韓·阿협력시대 現場=

全斗煥대통령 아프리카 巡訪길

外交·經濟의 새로운 突破口열어

검은땅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우리나라국가원수로선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한 全斗煥대통령의 頂上外交가 펼쳐지는 곳마다 태극기의 물결이 흘러넘치고 있다. 세계구석구석까지 뻗어가는 한국의 모습인 동시에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새로운 협력시대의 막을 올리는 現場이기도 하다. 全斗煥대통령의 아프리카巡訪은 우리외교의 다변화 汎世界化를위한 본격적인 출발로 볼수있다. 사하라사막이남의 黑阿44개국은 유엔회원국의 28% 비동맹회의의 46%를 차지하는 국제무대에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고있지만 지금까지 南北외교대결에서 우리의 가장 취약지구로 손꼽혀온 곳이다.

북한은 아프리카新生國들에게 군사지원을 통해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 40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지만 우리나라는 親美的인 색채가 강한데다 이지역의 독립투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상당수 국가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온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상황은 점차 변해가고 있다. 과거의 정치위주보다 경제위주로 아프리카의 狀況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것이다. 대부분의 아프리카국가들이 이제 혁명단계를 벗어나 네이션·빌딩에 힘을 쏟고있다. 국가독립투쟁과정에서 필요로 했던 군사지원보다는 경제건설에 도움을 줄수있는 기술협력을 원하고 있다. 이지역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反西方비동맹중립을 표방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원리를 도입한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들이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있고 그들의 필요에 한국이 진출하고 있는것이다.

첫방문국인 케냐에서 全대통령은 南阿共의 인종차별문제, 나미비아문제등 아프리카국가들이 공동으로 안고있는 현안문제에 관해 그들과같은 입장임을 밝혔고 모이대통령은 우리의 평화통일방안을 높이평가하고 우리나라의 대화정책을 적극지지할것을 약속했다. 모이대통령은 현재 아프리카단결기구(OAU)의 의장으로서 域內국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수있는 입장이기때문에 양국頂上의 만남은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외교에 한층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프리카국가들이 지금까지 植民主義의 잔재라고 막연히 알고 있었던 한국이 그들과 같이 植民統治의 피해국임을 깨닫게되고 그들의 국가건설의 훌륭한 동반자라는 것을 이해할 때 한국과 아프리카관계가 긴밀해 질것은 불문가지다.

全대통령은 韓阿협력관계를 구체화 시키는 방안으로「開發前線」이란 구상을 제시했다. 이것은 開途國과 先進國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開途國간의 공동협력모색도 그 이상 필요하다는 것으로 中進개도국인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後發개도국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원과 잠재력에 접목시켜 공동의 이익을 꾀하자는 방안이라 할수있다.

開發前線은「기존 세계경제체제는 선진국에 유리한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뜯어고치는 개혁작업을 추진해야한다」는 개발도상국들의「新국제경제질서」주장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비타협적인 태도에 대한 대처방법을 제시한것이다.

양국 대통령은 양국간의 무역확대뿐만아니라 농업 수산업 제조업 보건 관광 과학 기술분야에서의 협력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정기적인 공식협의채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케냐의 새로운 同伴관계는 나이지리아 가봉 세네갈등 모든 순방국들에게 연결될것 같다. 이들 4개국이 아프리카 東西部의 지도적인 국가들이기 때문에 한국붐이 검은대륙전역으로 파급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아프리카는 세계면적의 6분의1을 차지하고있으며 공업원료로 필수적인 40여가지의 주요광물자원을 거의 독점하고있는 자원의 寶庫로 현재보다는「미래의 대륙」이다. 이러한 막대한 자원은 조만간 아프리카의 현실을 보완할것으로 예상된다. 中東지역의 建設수출퇴조와 함께 우리에겐 제2의 中東이 될수 있다는것이다.

이지역국가들과의 협력이 강화될 경우 우리는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탄탄한 발판을 굳혔다고 생각했던 북한이 아프리카에서 우리의 강력한 도전으로 충격을 받게될 경우 설땅이 없어진 그들이 우리측이 제시한 대화와 테이블로 나올수밖에 없는 통일 외교의 간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것이다.

全대통령의 아프리카巡訪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미 세계적인 입장을 받아 유럽국가들은 우리외교가 대담하고 앞을 내다보는 前向외교라고 평가하고 있다.

【李在武기자】

◇韓·케냐 協力과 단합 강조하는 全大統領 18일밤 모이 케냐대통령이 迎賓館에서 주최한 공식만찬석상에서 연설하는 全斗煥 대통령. 全대통령은『고입을 하나에는 술을 걸수없다는 귀국전래의 금언에서도 알수있는바와같이 협동과 단합의힘은 매우큰것』이라고 양국의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18日 나이로비[illegible]】

◇사파리 오픈카로 野生動物관람 全斗煥대통령이 18일 낮 케냐의 마사이마라·국립공원(자연동물원)에서 사파리 오픈카를타고 大平原에서 뛰놀고 있는 야생동물들을 보고있다. 【18日나이로비[illegible]】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95>

朴婉緒 作 金光培 畫

양달 (90)

『고백하고 폭로가 다르다는 것쯤은 수지도 알텐데』

『그래서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그애의 수치심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아요.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 폭로당한 그애를 따뜻하게 감싸줄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애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요. 그애를 모른 척하지 말아요. 제발』

만일 인재도 오목이를 모른 척하겠다면 사생결단을 하고 덤빌 것처럼 수지는 분별없이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녀 자신과 수철이가 함께 오목이를 모른 척한데 대한 속죄를 엉뚱하게도 그녀는 인재한테서 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인재의 표정은 미동도 안했다.

『웃기고 있네. 오목이 일을 의논하자는게 겨우 그거였어. 우리끼리 벌주고 약주라구? 세상에 맙소사. 우리가 뭔데? 더군다나 수지가 오목이의 뭐가된다고 감히 그애의운명을 공기돌처럼 놀릴수있다고 생각하지? 고아에겐 자기 운명에 대한 권리도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줄 아나? 고아라고 운명까지도 베푸는 구호품처럼 감지덕지 받아먹길 바란다면 멸시가 지나치군. 그때 그만큼 그애를 모욕하고도 아직도 부족한가? 정말이지 정떨어지게 정력적인 잔혹 취미야』

수지를 향한 인재의 적의가 조금씩 달아올랐다.

『그애는, 오목이는…』

수지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나서 계속했다.

『그앤 내가 오래전부터 돌보던 애예요. 걔도 나를 따랐구요.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만날때마다 서로 자매처럼 느끼곤 했죠』

『그야말로 자매결연이로군. 수지가 자선사업도 했었나? 난 몰랐어. 하긴 내가 수지에 대해 뭘 안다고 할수 있을까?』

『제발 부탁이에요. 비꼬지말고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요. 오목인 내가 어려서 용돈을 절약해서 도와주던 어떤 고아원에서 만난 고아인건 사실이지만 걘 보통고아들하곤 달랐어요. 머리도 좋고 생각하는게 올바르고 심덕이 무던해서 누구나 좋아하고 따랐죠. 걔의 좋은 점은 고아라는 약점을 보충하고도 남을만했어요. 틀림없이 양가집 딸일거예요』

『서울의 부자집 아이들중엔 어려서부터 불우이웃돕기를 취미 삼는 아이들도 있단 소리를 들은 적이 있지. 나같은 촌놈에겐 매우 구역질나는 소문이었지만』

『인재씨가 반청 부려도좋아요. 나에 대한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지금 내가 한 말을 기억해만 준다면…』

『그런 아니꼬운 불우이웃돕기에 하필 그 가엾은 미스최가 찍히다니』

인재가 짐짓 긴 한숨을 토해내듯 말했다.

『찍히다니요?』

『찍혀도 이만저만, 그여잔 치명적으로 찍혔어』

『그때 일은 잘못했다고말했잖아요. 그 일을 너무과장하지말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은 그다 상처 입지않았을지도몰라요. 그애가 처해온 환경이 그만[illegible] 상처 입고는 배겨낼수 없는 환경이었다는걸 감안해야 돼요』

『그 여자가 상처 입지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인재의 차갑고 날카로운눈빛이 거의 피부적인 감촉으로 와닿았다. 그가 [illegible]

조금씩 눈에 보이게 침통해지는걸 바라보면서 수지는 더듬거렸다.

海外토픽

먼로他殺 입증가능

★옛동료 日記帳입수주장

20년전 과다한 약물을 복용, 자살한것으로 돼있는 세기의 육체파여우 마릴린·먼로와함께 일한적이 있다는 배우 테드·조던은 먼로가 타살됐음을 입증할수있는 그녀의 일기장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조던은 먼로의 타살설을 믿고있는 그녀의 친구들이 20년동안이나 찾던 이빨간색장정의 일기장을 언제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앤티쿼리어스골동품시장소유주로서 먼로의 일기장에 10만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던 더글러스·빌리어즈씨는 조던에게 5만달러를 덤어 15만달러를 내놓겠다고 제의했다.

【로스앤젤레스=AP】

마비카 내년에 市販

★日소니社, 필름없는카메라

일본의 전자회사 소니는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마비카 카메라(자기비디오카메라)를 내년여름부터 전문사진사와 언론기관을 상대로 판매개시할 예정이라고 이회사간부들이 19일 말했다.

작년8월 첫선을 보인 이 신개발카메라는 전자를 이용하여 재사용가능한 자기반에 영상을 기록했다가 TV화면에 즉각 방영할수 있게되어있어 TV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비디오스틸사진을 TV화면에 수신해 두었다가 이를 재생하여 보도, 출판하는데 유용하게 쓰일수있다.

【東京=[illegible]】

"단풍을 찍읍시다"

제7회 사진촬영대회 안내

아마추어 사진애호가들을 위한 사진대회가 금년에는 단풍이 보기 좋은 보이드·콘저베이션·팍에서 열립니다.

피크닉겸 가족동반, 공원에 나오시어 자연을 배경으로 한 모델의 아름다운 모습을 맑은 렌즈에 담아봅시다.

때 : 1982년10월2일(토) 상오11시
곳 : 보이드·콘저베이션·팍
(Boyd Conservation Park : on Islington, Hwy 7북쪽)
부 문 : 칼라·흑백·스라이드
크 기 : 8×10 이상
출품마감 : 10월30일한

◆79년 제5회 최고상 황보운작품

참가자격 : 국적불문(단 : 사진협회 임원·한국일보 직원및 프로 사진작가 제외)
참 가 비 : $10(칼라필름 1통 제공)
시 상 : 1등 부상 나이콘 카메라 1대
기타 6등까지 시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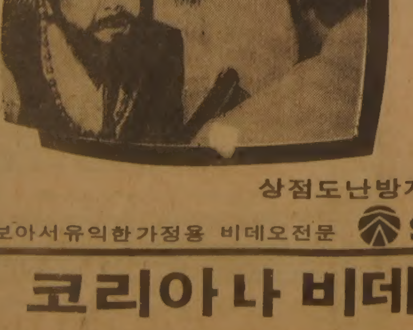
◆선착순 1백명에 한함

문의및 접수처:
◉한국일보사(1025 Dupont St. 전화 533-2361)
◉전경수(36 Neapolitan Dr. 438-4435)
◉킴스카메라(619 Bloor St, W, 534-1085)
◉새한칼라(630 Bloor St. W, 535-7772)

주최 : 한인사진협회
한국일보사

여름을 시원하게

최근도입된 인기절정의…… 비데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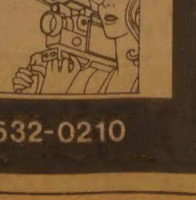


인기있는 각종 Program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든면에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아오니 일차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 600여각종비데오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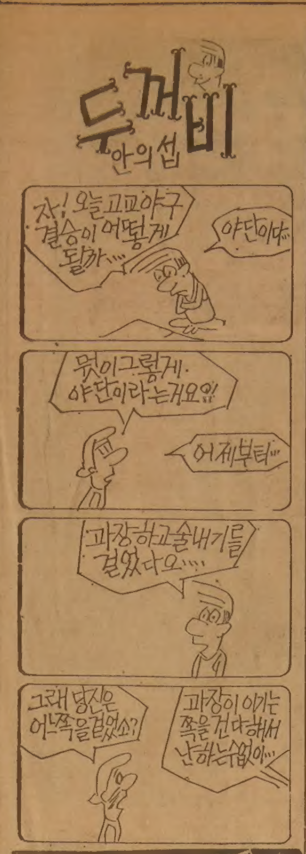
상점도난방지및안전을위한비데오설치

보아서유익한가정용 비데오전문 SANYO



코리아나 비데오센터

Koreana Video Centre · 678 Bloor St, West · 532-0210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醫療보험료 내려야한다

KDI 組合재정 累積잉여금 指摘

제1종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내려야한다. 각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이 보험의 잉여금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있어 보험료율의 인하가 불가피하며 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현행보험제도를 개선해야한다。20일 한국교육개발원(KDI)이 의료보험에 관한 정책협의회에 제시한 「의료보험 확대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77년7월1일부터 실시된 제1종 의료보험의 누적준비금이 무려 1천1백84억원이나 되며 여기에 공무원과 교원들의 준비금까지 합치면 1천3백86억원에 달한다。

"低所得層일수록 부담율높아 부양가족따른 料率조정필요"

KDI는 1종보험의경우 가입자들이내는 보험료는 수혜자1인당 연간평균 2만3천8백원인데반해 지급받는 보험금은 1만7천6백원으로 그비율이 74%밖에안돼조합재정에 과도한 잉여금이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험료부담은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더높아 월소득 10만원 이하인경우 전체평균 3·09%(실질보험료율)보다 훨씬높은 3·43%, 월소득 10~15만원은 3·21%로 나타났다。 이에반해 월소득 15~20만원은2·84%, 20~25만원은 2·60%, 25~30만원은 2·69%로 소득이높을수록 보험료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의료보험이 과도한 보험료를 징수해서 거액의 잉여금을 누적시켜가는것은 문제가있다고지적, 의료시혜범위를 넓히거나 월급수준이 낮은 직장근로자들이내는 보험료율을 현재보다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또 부양가족이 많으나 적으나 근로자의 보험료율이 똑같은 현제도를고쳐 인구정책과관련, 부양가족이 적은사람에게는 보험료율을 낮추어주는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또지난81년7월1일부터木浦市등 6개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지역2종과 문화예술인, 양곡상, 이·미용사, 택시조합등 자영인을 대상으로한 직역(職域)2종등의 의료보험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상당한문제점이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모형을개발한후에 서서히 대상지역을 늘려 나가는것도 건의했다。

또 영세주민들은 아예 보험료를 내지않아 조합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5차 5개년계획대로 제2종 보험을 확대할경우 큰 부작용이 일어날것으로 예측되므로 더이상의 확대는 하지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만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위해서 병원과 의원의 진료비에 차등을 두고 급인력과 시설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危險…化學약품 管理허술

學校·工場등 廢棄시설未備로 公害요인도 심각

安全服·保眼鏡착용도 없이 무자격자들 藥品 마구다뤄

종류도 5千여種…性質 몰라 취급계몽·當局감독강화 時急

◇화공약품은 위험성도 높고 잘못 폐기하면 수질오염등 공해 요인이되는데도 관리체제가 너무 소홀해 탈이다。

화학약품 관리체제가 너무 허술하다。화학약품으로 각종실험실을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서는 담당교사가 경험부족이나 실수로 사고를내기도하고 폐기시설을 제대로갖추지않아 하생들이 화학약품의 위험성과 공해방지교육을 받지못하는 결과를 빚고있으며 생산공장이나 상점에서도 위험물 취급규정을 지키지않거나 공해방지시설을 법대로 갖추지않은채 인근 하수구에 마구 버려 심각한 공해요인이 되고있다。

또 일부 화공약품상에서는 위험성과 유해성에대한 지식이 전혀없는 무자격자가 약품을 함부로 다루고있어 뜻하지않은 사고도 유발한다。

현재 약 5천여종으로 추산되는 화학약품은 공업용인 화공약품과 실험용인 시약으로 구분되는데 시약의 경우 서울시내 2백50여개 중학교에서만도 1주에 2시간씩실험시간을통해 연평 사용되고있다。 이가운데 13종 6천kg이독극성화학약품인데 중금속류로서 인체에 극히 유해한 사염화탄소(CCL₄)만도 2천7백kg이나 사용되고있다。

여기에 대학·연구소및 고교에서의 사용량을합치면 엄청나게많다。

그런데도 지도교사들이 처리방법을 모르거나 처리시설을 갖추고있지않아 실험이끝나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수구로 연결된 싱크대를통해 버리고있어 교육적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있다。

또 실험시간의 안전관리도 큰문제。

대부분의 경우 실험중 발생하는 유독성기체의 배출장치도없으며 학생과교사는 필수적인 실험복과 보안경도착용하지않은채 시약을 다루고있어 사고가잦다。

중학교에서 자주하는 수소발생실험시간에 폭발사고를 일으키는 예도많다。

한편 화학약품을 이용하는 생산업체나 화공약품상은 더욱 큰 문제。

무허가 화공약품상이 난립하고 있는데다 허가가있어도 위험물과 독극물취급기능사는 형식상있을뿐 실제로는 무자격종업원들이 아무런 지식없이 멋대로 진열해놓고 팔고있다。

실제로 지난9일하오 2시께 서울 永登浦區 永登浦洞7街영안화공약품상사 (대표 韓仁根·47)에서 17ℓ들이 깡통용기에 넣어 진열장에보관중이던 디메틸술페이츠황산이 용기의 밑부분이 부식되면서 생긴 바늘구멍만한틈으로 절반이 새어나와 이건물3층 서울용달차 조합제6지부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무장 李景燾씨(42) 등 7명이 호흡장애와 구토·마비증세를 일으켜 병원에입원, 치료를 받았다。

또 공장이나 화공약품상에서 멋대로 하수구에 버린 폐기물들이 하수구에서 화학반응을일으켜 폭발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6월26일낮11시께 서울永登浦區新吉洞50의8 미용재료상 신기주유소부근 주택가에서 20~40m간격의 맨홀 3군데가 동시에 폭발, 인근 10여가구의 유리창과 벽이 금이가고 주민1백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또 지난달16일낮12시께 서울東大門區面牧洞 李모씨(48·여)는 집안목욕탕에서 샤워를하다가 목욕탕 하수구를 통해 스며든 종류를알수없는 가스에 중독, 의식을잃어 병원에 입원했다。

서울大 李泰寧교수는 화학약품의수는 한두가지가 아니고 그성질도 새로알려지는게 많다고 전제 『이들 약품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취급자에 대한 계몽과 당국의 감독이 강화돼야한다』고 말했다。【金宗來기자】

54명 집단食中毒

仁川·水原 회사食堂·중국요리집서

【仁川·水原】회사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여종업원43명과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사먹은 11명이 식중독증세와 심한복통을 일으켰다。

19일 하오1시께 仁川市南區朱安洞1385의14 興倉물산(대표 孫正守·45) 제2공장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이회사 종업원 李順金양(22) 등 43명이 하오5시부터 심한 복통과 설사를해 仁川시립병원에서 가료중이다。

李양에 따르면 점심때 회사에서 제공한 백반과 콩나물·두부·잡채등을 먹은뒤 4시간쯤 지나자 배가 몹시 아프고 설사가나며 정신이혼미해지기 시작했다는것。

또 이날 水原市華西洞81의3 중국집 태평원(주인 姜옥자·30)에서짜장면을사먹은 朴숙경양(水原市華西洞華西아파트15동582호)등 11명이 밤10시께부터 심한복통을일으켜 朴양등7명이 도립水原병원에 입원, 가료중이다。【聯】

트럭 人道돌진 11명死傷

어린이 피하다…뺑소니운전사 檢擧

【淸州】19일하오9시40분께 忠北淸州市塔洞155 참생약앞길에서 서울아8-4265호8톤트럭 (운전사 安明相·29·사진)이 인도로 돌진, 더위를식히던 주민10여명을덮쳐 金홍석씨(40·충북淸原郡江西面) 등4명이 그자리서숨지고 任용길씨(40·淸州市福臺洞16)등 7명이 중경상을입었다。

운전사安씨는 사고후 차를몰고도주, 淸州市 永雲洞시장 주유소앞에 차를버리고 薰忠洞 애인집에 숨어있다가 20일새벽 경찰에 검거됐다。

安씨는 이날밤 충북淸原郡文義面에서 모래운반작업을 마치고 淸州로돌아오던중 갑자기 길을건너던 어린이를피하려고 핸들을꺾다 인도로 돌진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사망자 ▲金홍석 ▲金동완(43·淸州市塔洞155 참생약국약사) ▲金명화(33·淸州市永雲洞) ▲李용인(30·淸州市龍潭洞156)

野球場소란 即審회부

釜山 관람중滿醉 욕설·야유퍼부어

【釜山】부산西部경찰서는 20일 부산九德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청룡간의 프로야구경기중 술에취해 욕설과야유를 한 김용범씨(27·부산東區凡一洞1352 회사원)와 김대삼씨(26·무직)등 2명을 즉심에 넘겼다。

이들은 19일하오8시께 야구장 관중석에서 소주를 나누어마시고 청룡팀에게 욕설과 야유를하다 경비경찰관의 제지를 받고도 계속 소란을 피웠었다。【聯】

成績不良 9백64명

서울大서 學事징계

서울大는 20일 82학년도1학기성적불량자 9백64명을 학사징계처분했다。

이가운데 졸업정원제의적용받는 1·2학년이 7백90명으로 전체의82%를 차지했는데 1학년의경우 경고처분이 5백89명, 근신처분이 47명, 81년도입학자로 학과미배정된 제명처분자 3명등 모두 6백39명으로 전체 6천3백94명의 10%에 해당된다。

2학년은 제명 53명, 근신 8명, 경고90명등 모두 1백5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졸업정원 5천20명에 5천2백89명이 입학했다고 지난해 1백53명의 제명을 포함, 모두 2백6명이 제명된데다 군입대및 휴학자1백여명을 포함하면 졸업정원에서 50여명이 미달, 사실상 졸업정원제에의한 탈락의 위험은 없어졌다。

신입생의 대학별 학사징계내용은 의대가 1백명가운데 학사경고15명, 학사근신 1명등 16명으로 가장높고 수의대가 70명중 10명, 인문대가 6백66명중 77명등의 순위며 법대는 학사경고 28명, 근신 2명등 30명이 징계처분을받았다。

이밖에 3·4학년은제명18명, 경고1백44명, 근신12명등 모두1백74명이 징계처분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延大, 제적41명포함 7백81명 징계처분

延世大는 20일 82학년도1학기 성적불량학생가운데 제적 41명을제적한등 모두 7백81명을무더기로징계처분했다。

징계내용은 학사경고가 1학년 4백20명을포함 6백65명, 학사근신 75명, 제적 41명。

버섯먹고 2명죽어

【報恩】버섯국을 끓여먹고 중독증세를 일으켜 충북淸州시내 선가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충북報恩郡馬老面卞屯里291의1 박은하씨(1354·농업)의 장녀 숙양(12·마로국교6년)과 2남 동근군(마로국교5년)이 19일하오2시30분께 숨졌다。【聯】

韓電 金炯澤理事

한국전력 金炯澤이사(자재담당)가 미국수출입은행 차관계약을 위해 도미활동중 심장질환을 일으켜 하와이호놀루루의 퀸즈메디컬센터에서 치료중 20일새벽 사망했다。향년54세。

「腦炎증세」또1명숨져

全南道內환자 모두 21명으로 늘어

【木浦】뇌염증세로 木浦시내 성골롬반병원에 입원치료중이던 송모양(15·전남海南郡宋旨面)이 19일밤 10시께 도내에서 처음으로 사망했다。

한편 20일상오 동병원에는 김모군(10·木浦市竹橋洞)과 양모군(6·木浦市竹橋洞) 등 2명이 뇌염증세로 입원했다。이로써 도내 환자수는 모두 21명으로 늘어났다。【聯】

脳炎증세 井州에도

【井州】전북井州市蓮池洞차정기씨(42)의 4남 선종군(6)이 지난11일께부터 고열과 구토 경련등 뇌염증세로 정읍 아산종합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이로써 전북도내에서 발생한 의사뇌염환자는 20일현재 5명인데 1명은 완치됐고 4명은 계속치료를 받고있다。【聯】

무더위속 「83년캘린더」登場

【全州】늦더위가 푹푹 찌는 「가을속의 여름」인데 거리에는 내년도 캘린더 (사진)가 성급하게 등장, 계절을 앞질러가고있다。

20일 전주시高士洞1街한국캘린더총판진열장에 올들어 첫선을 보인 20개종류의 83년도용 캘린더는 지난해 9월20일 등장했던 올해분에비하면 무려33일이나 빨리나온것。

모시적삼에 말총갓을 쓰고 지나가다 이달력을 본 朴東燦할아버지(67·全北高敞郡富安面雲陽里)는 『내평생 삼복더위에 새달력이 나온것을 처음봤다』면서 『아직 벼도다 익지않았는데 너무 섣부른것같다』고 한마디。

한국캘린더총판의 劉伶九씨(49)는 『불황을 극복하려는 업계의 서비스작전을 돕기위해 일찍 제작했다』면서 달력의 그림은 동양화·국내명소·분재·정원이있는 주택, 인물(모델)등이 대종이라고 설명했다。【聯】

鑛夫4명 매몰

太白탄광 生死불명

【太白】20일상오7시께 강원太白市禾田1洞 太白탄광 본4갱 지하3백50m지점 2편막장에서 지하수맥이 터지면서 갱도천장이무너져 선산부배재창씨(41·禾田1洞) 손순관씨(38·〃) 김재운씨(47·〃)와 후산부 김기련씨(23·〃)등 4명이 죽탄에파묻혀 상오10시현재 생사가확인되지 않고있다。

사고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의흥씨(37·선산부)는『막장 맨뒤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천장에서 죽탄이 쏟아져 나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동료들은 간데가 없었다』고 말했다。【聯】

5行뉴스

◆「안버리기運動」벌이기로 내무부는 자연보호운동의 하나로「안버리기 운동」을 벌이기로하고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오물수거용 비닐주머니 1백만장을 전국의 주요등산로와 관광유원지에서 행락객들에게 배포키로했다。

日本「安全責」 주한日大使館 지키는 高永燦경감

"묘한일 맡았지만…" 外柔內剛 엿보여

「日本」의 안전을위해 노심초사하는 한국인。 이런 사람이있다면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시민이 많을것같은게 한창 파고가 높은 요즘의 한·일 관계다。

高永燦경감(50·사진)은 실제로 이 「지탄을 받을일」을 하느라 누구보다 많은땀을 쏟는 사람。 서울鍾路경찰서 외사계장이란 직책이 한국속의 「日本」인 주한일본대사관경비업무를 시킨다。

高경감은 매일 아침 아예 鍾路區中學洞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으로 출근한다。 경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루에도 3·4차례 생기는 상황에 「무리없이」 대처하느라 바쁘게 뛰어다니다보면 점심조차 거르기 일쑤。

침략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에 대한 민족적 의분을 그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는 조금도 소홀할수 없는 것이 경찰관으로서의 입장。 간혹 「시위」를 제지하고 설득하다 보면 『당신은 한국사람이 아니냐』는 애꿎은 화풀이를 당하고 분신자살을 기도하는 열렬청년을 말리려다 석유를 나누어 뒤집어 쓴 기억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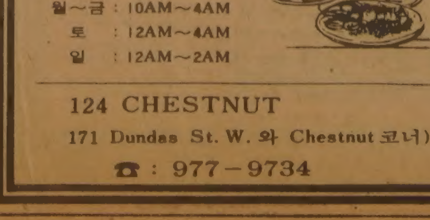
경찰경력 24년중 15년간을 줄곧 외사경찰, 특히 일본담당만 해온 일본通。 지난74년 文世光사건과 소노다 망언으로 격렬한 반일시위가 계속될때는 한달간을 일본대사관에서 살다시피 했다。

『일본을 미워해야 할 때마다 오히려 지켜주는 묘한 일만 도맡아한 셈이지요。 어떤 땐 스스로 멋적기도 해요』

수시로 일본대사관보안책임자인 일본인총경과 경비상황을 협의하기도 한다는 高경감은 「가깝게」 있는 입장이지만 시위의 「성격」과 「주장」을 꼬치꼬치 캐물어 올땐 슬그머니 부아가 치밀기도 한다는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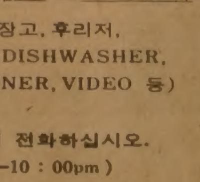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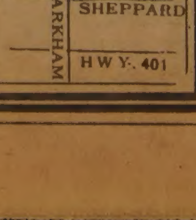
『그렇지만 시위의 내용을 보태지도 빼지도않고 이야기해주지요。 우리국민의 감정을 정확히 알린다는 점에서 이건 중요합니다』 요즘일본인들은 태연한척하지만 한국인들의 反日감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다는 귀띔。 시중음식점에 「일본인출입금지」 푯말이 나붙었다는 보도에 대사관직원이 「분위기정찰」까지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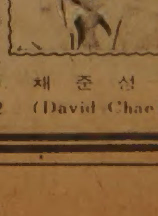
『항의도 중요하고 일본정부의 시정조치도 중요합니다。그러나 더 중요한것은 우리민족의 저력을 더욱 키워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서 「외유내강」을 느낀다。【姜秉泰기자】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12AM~4AM
일 : 12AM~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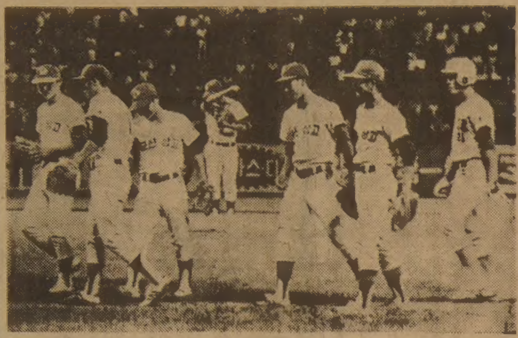
보십시요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 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 8900 채 준 선
(R) (416)633 7892 (David Chae)

하루休息…戰列재정비
群商이냐 在日동포냐



영광의 초록봉황대기는 누구의 품에 안길것인가。 결전을 앞둔 群山商高와 在日同胞팀은 20일 내린비로 소중한 하루의 휴식을 얻었다。 5게임 연투로 피로한 在日同胞 에이스 梁視鐵에게도, 시즌4번째 대회를 치르고있는 群山商高 에이스 趙啓顯에게도 힘을 재충전할수있는 반가운 비였다。 어느팀이 더큰 이득을 얻은것일까。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다。 운명은 21일하오3시 마지막 한판으로 가려질뿐이다。 무쇠팔의 사나이 梁視鐵、 두뇌피칭의 趙啓顯。 投打의 핵으로 팀을 이끌어온 두 맹장의 대결에 전국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결승전에 앞서 낮12시부터는 자주(紫朱)봉황대기 주인을 가리는 3、4위 결정전이 벌어진다。

제12회 봉황대기고교야구

◇제17일 준결승전

	1	2	3	4	5	6	7	8	9	계
부산고	0	0	0	0	0	0	0	0	0	0
군산상	0	2	0	0	0	0	0	0	X	2

▲부산투수=金宗爽 포수=田龍雨 ▲군산투수=李東錫 趙啓顯(3회) 포수=張虎翼 ▲안타=부산5―6군산

군산상고 집중 3安打로 결승에
群商、先制點지켜 釜山제압 2-0

올 청룡기우승팀 群山商은 19일 밤 잠실구장서 벌어진 제12회 봉황대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17일째 준결승전서 대통령배우승팀 釜山高와 맞서 2회초 집중 3안타로 2점을 뽑아 2―0으로 승리、결승전에 올랐다。

群商은 컨디션이 저조한 釜山에이스 金宗爽이 페이스를 찾기전인 2회말 5번 趙啓顯 6번 張虎翼 7번 吳仁植등의 연속안타로 결승2점을 뽑았으며 群商의에이스 趙啓顯은 釜山강타선을 산발5안타로 처리했다。

이날 잠실구장에는 개장이래 가장 많은 5만여 관중이 스탠드를 메웠다。

▲부산투수=金宗爽 포수=田龍雨 ▲군산투수=李東錫 趙啓顯(3회) 포수=張虎翼 ▲안타=부산5―6군산

남자、臺灣에 역전勝
太平洋 J배구 풀세트接戰… 1勝기록

【橫濱(日本) 19日 聯合】 제9회 태평양연안청소년배구선수권대회에 출전중인 한국남자팀은 19일 日本 요꼬하마(橫濱)문화체육관에서 속개된 이틀째경기에서 臺灣에 3―2로 역전승을 거두고 1승을 기록했다。

◇제2일전적

▲남자부

한국 3 (15―7 15―9 15―8 13―15 6―15) 2 대만

중공 3―0 캐나다

▲여자부

일본 3―0 호주

일본고교 3―0 뉴질랜드

일본 3―0 캐나다

대만 3―0 호주

全南 종합우승
대회新 37個나 市道대항 弓道폐막

【水原】 제3회 화랑기쟁탈 전국시도대항궁도대회서 全南이 38점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대회신기록 37개를 세우고 19일 水原工高에서 막을 내렸다。

全南은 남고단체전서 3천7백17점(종전 3천6백92점)으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것을 비롯、여고단체·남중단체·여고개인등 4개종목을 석권、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최종일전적

▲시도대항종합순위=①전남38점②부산35점③인천32점

▲남고단체=①전남3、717②경기3、705(이상 대회신 종전3、692)

▲여고단체=①전남3、708(대회신 종전3、691)

▲남중단체=①전남3、833

▲여중단체=①인천3、709②충남3、665③서울3、660(이상 대회신 종전3、627)

▲남고개인=①권인수(부천고) 1、284(대회신 종전1、265)

▲여고개인=①신정순(광주여고) 1、277(대회신 종전1、275)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533—2361

OB 朴哲淳 20連勝
프로야구 三美、10連敗뒤 해태깨 1勝

【서울·釜山·仁川】 朴哲淳이 20연승의 대기록을 세웠다。

프로야구 OB베어스는 19일밤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三星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에이스 朴哲淳이 三星의 강타선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으며 완투하고 申慶植 李根植등이 三星마운드를 12안타로 공략、6―0으로 완승했다。

이날 朴哲淳은 三星의 32타자를맞아 포볼4개와 2안타만을허용하고 삼진8개를 탈취、OB승리의 원동력이 됐다。 이로써 OB는 14승4패를 기록、단독선두를 지켰다。

三美슈퍼스타즈는 仁川경기에서 金在峴·甘四用의 계투로 해태타이거스 타선을 7안타 2실점으로 요리하고 金浩仁의 우중월2루타등 장단10안타를 터뜨려 6―2로 승리、10연패끝에 1승을 올렸다。

釜山경기에서는 홈팀 롯데가 홈런5개가 난비하는 타격전끝에 MBC青龍을 6―4로 제압했다。

◇19일전적

◆서울

삼성	000	000	000	0
OB	002	000	22×	6

◆仁川

해태	000	000	020	2
삼미	102	000	12×	6

◆釜山

MBC	010	001	020	4
롯데	010	201	21×	6

▲홈런=白仁天(2회) 이상MBC 金龍遠(8회·2점)·이상롯데 C) 金容哲(2회) 金成璿(8회·이상롯데) 朴庸成(4회·2점)

◇중간 성적 (19일현재)

순위	팀	승	패	승률
①	OB	14	4	0·778
②	삼성	14	6	0·700
③	MBC	13	6	0·684
④	롯데	8	9	0·471
⑤	해태	5	13	0·278
⑥	삼미	2	18	0·100

◇群山商高
李東錫에 趙啓顯계투
호화打線…핀치에 강해

◇群山商高 투수 趙啓顯

봉황대회서만은 어세게 운이 나빴었다。 77년을 제외하고 매년 봉황패권을 노렸으나 번번히 1、2회전서좌절、응원 湖西야구팬들을 실망시켰다。 76년 3회전에 오른것이 봉황대회서 거둔 최대의 전과。

그러나 이번 대회서만은 자신만만하다。 白基成 감독은 ... 고있다。 趙啓顯의 위력은 대단한 위기에도 흔들림이 없는 두뇌피칭、그리고 상대타자의 허를 찌르는 두뇌의 놀라운타력을 보이고있다。

준결승서 최대의난적 釜山高에 2―0의 완승을거두자 자신을 얻어 우승을낙관하고있다。 한동안 슬럼프에빠져 있던 群商은 趙啓顯의등장으로 또다시 맹렬한기세로 호남돌풍을일으켜 정상부대를 호령하고있다。

에이스 趙啓顯은 1학년이던 지난해 시즌 첫대회 대통령배를 제패했으며 금년에는 청룡기를 석권、마지막 남은 봉황고지 정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

趙啓顯역시 在日동포의 梁視鐵과 같이 팀의 주포이다。 趙는 5게임에서 17타수6안타、타율 3할5푼2리의 강타력을 보였다。 이번 대회서는 1타점에 그쳤으나 핀치에서 더욱 강한것이 그의 장점이다。

群山商中 시절부터 趙啓顯과 배터리를 이루고있는 6번 포수 張虎翼은 19일 준결승서 안타로나간 趙를 중월3루타로 불러들여 선제결승타점을 올리는등 3타석에서 2개의 2루타를 날렸으며 5게임에서 18타수 9안타 5할의 놀라운타력을 보이고있다。

징크스 꼭 깰터
초반집중 攻略
群商 白基成감독

◇白基成감독

李東錫과 趙啓顯을 계투시킬 생각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在日동포의 타봉은 위협적이었다。 강호 釜山高를 쓰러뜨린후 선수들은 사기가 충천해있다。 동포팀 투수 梁視鐵이 연투로 몹시 피로해있는것같다。 초반에 집중공략하겠다。 「봉황기에 약하다」는 群山商」의 징크스를 잠실구장서 깨고 말겠다。

갈수록좋아지는 팀웍
철완梁視鐵 攻守의核
◇在日同胞

◇在日동포 투수 梁視鐵

봉황대기 출전 10회。 모국방문경기를 통해 日本의 앞선 야구기술을 모국에 소개해왔지만 불운하게도 74년 단한차례 결승에올라 張孝祚의大邱商에 10―5로 무릎을꿇었다。 그러나 대포를 만지는데는 시간이 걸리게마련。 고시엔(甲子園)을 넘나드는 日本 關西지방의 강타자들을 뽑았으나 대회출전에 앞서 한두차례 손발을 맞추어보기에도 급급한 형편이다。

언제나 계단을 올라갈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이 이팀의 특성이기도 하다。 이번대회서도 1회전서 沖岩南에 5―4로、2회전서慶南高에 2―0으로、北一高와의 3회전서 2―1로、준준결승서 馬山商高에 4―3으로 살얼음을 밟듯 4강까지 올라왔다。 결승을 향한 4강전에서는 완전한 팀웍을 과시하며 光州一高에 초반부터 맹타를휘둘러 6―3으로 대승했다。

이꾸노(生野)工商에이스 梁視鐵이 투타의핵을 이루고 있다。 별명 미노루(稔)。 한 체인지·오브·페이스로 우승후보 北一高등 강호들을물리친 梁視鐵은 5게임을 완투하는 무쇠같은 힘을자랑하며 더욱 날카로와진 속구와 커브로 정상을 노리고있다。

4번타자로 팀의 주포인梁은 이날까지 16타수5안타、타율3할1푼2리의 강타력을과시하며 2타점을올렸다。

韓在愚감독은 결승전 승부의 키가 梁視鐵 어깨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아무도 구원투수가없는 가운데 과연 梁視鐵이 최대난관인 群山商과의 6번째 게임서도완투를 할수있을까。 光州一高와의 준결승서도 梁視鐵은종반 반격에 3개의 포볼을 허용하며 피로의 빛을 보였다。

또하나의 강점은 야수들의 확실한 플레이이다。 안타를 맞은 고비에서도동요하거나 욕심을 내지않고차분히 아웃·카운트를 줄여나가는 모범적인 수비를 펼치고있다。

梁視鐵외에 선두타자 중견수 張基浩、3번타자 유격수 河信之、7번타자 林升俊이 장타력을 가져 팀의 득점원이다。

미시마(三島)고와 에노가와(江川) 소속의 이들은 수비에서도 뛰어난 민첩성과 정확성을 가져 여러차례의 큰 위기를 잘 막아냈다。

이들이 群山商 趙啓顯、李東錫의 마운드를 어떻게 공략할까。

중반猛打 공략
투수지원 사격
在日 韓在愚감독

◇韓在愚감독

팀웍이 점차 좋아져 다행이다。 群山商 투수 趙啓顯의 커브볼이 위력적이지만 중반에가면 충분히 공략할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투수 梁視鐵도 동포타자들의 지원사격으로 힘이 나는것같다。 최초의 정상탈환을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대회 준준결승서 趙는 자신의 기량을 십분발휘、大邱商 타자들로부터 기록적인 18개의 3진을 빼앗았다。 무엇보다 유리한 점은 수준급투수 李東錫의 지원이다。 李東錫이 초반 마운드를맡아 역투하는동안 趙啓顯은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자신의 주무기인 슈트와 슬라이더를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낼수있었다。 白基成 감독은 결승전서도 李東錫을 선발로 기용、핀치에서 趙啓顯을 내세워在日동포의 타선을 잠재우겠다고 장담한다。

선두타자 高長亮、3번 吳錫煥、4번 白仁浩、 ... 이 모두 在日동포의 외국투수 梁視鐵로서는 힘에 벅찬 상대들이다。

◇양팀 성적

群山商		在日同胞
5	게임수	5
29	득점	19
6	실점	11
160	타수	160
48	안타	45
0·300	타율	0·281
1	홈런	0
24	타점	17
4	도루	2
46	탈삼진	18
30	피안타	35
10	사사	20
8	실책	9
4	자책	7
0·84	방어율	1·40

◇群山商高 예상라인업

타순	위치	이름	타수	안타	타점
1	(三)	高長亮	20	3	1
2	(遊)	韓京洙	20	6	2
3	(一)	白仁浩	18	7	4
4	(右)	吳錫煥	17	6	5
5	(捕)	趙啓顯	17	6	1
6	(中)	張虎翼	18	9	6
7	(投)	吳仁植	13	2	2
8	(左)	李東錫	10	6	2
9		李承雨	14	2	0

◇在日同胞 예상라인업

타순	위치	이름	타수	안타	타점
1	(中)	張基浩	21	5	0
2	(三)	裵俊之	20	7	3
3	(遊)	河信之	12	7	0
4	(投)	梁視鐵	16	5	2
5	(一)	洪義榮	16	7	2
6	(左)	金升勳	18	4	1
7	(二)	林升俊	17	7	4
8	(右)	金義治	7	1	3
9	(捕)	林仁志	16	1	2

◇결승전오르기까지

◇在日同胞

①5—4 沖岩

②2—0 慶南

③2—1 北一

〈준준〉4—3 馬山商

〈준〉6—3 光州一

◇群山商

①8—7 大邱商

②7—1 心石稔

③8—3 馬山

〈준준〉4—1 大邱

〈준〉2—0 釜山

「저녁에 우는 새」 출연
尹靜姬양 10年間 10번째귀국

在佛영화배우尹靜姬양(38·사진)이 泰昌흥업제작의영화 「저녁에우는새」(감독金洙容)에출연차15일하오귀국했다。

제3대학에서 계획한 영화공부를 마치면 국내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밝힌다。 중년부터 완연하면서도 전성기시절의 미모를 잃지않고있는 尹양은 귀국 다음날 사람들이 몰라보려니하고 여의도광장에서 조깅을하다 그만 팬들에 둘러싸여 곤욕을 치렀다며 웃는다。

『딸 眞希(6)가 9월새학기에 입학하게돼 함께오지 못했어요。 마음이 놓이질 않는군요』

그의 이번 고국나들이는 공교롭게도 파리거주 10년동안에 10번째이고 영화출연역시 10번째가 된다。 그리고 10편 가운데 작년도 히트작 「自由夫人」을 제외하고는 9편이 金洙容감독의 작품이고 그가운데 4편이 泰昌제작이다。

『泰昌、그리고 金감독님과는 인연이 깊어요。 이번 출연도 泰昌과 金감독님의 권유때문이지요』

尹양은 영화에 출연할때마다 해외거주연예인의 국내활동비난에 신경이 쓰인다고 말한다。

『개런티가 다른 사람보다 높긴하지만 교통비·체재비·의상비·잡비를 제하면 작품만 남을뿐이에요。 영화가 좋아서、영화인의 길을 지키기위해 진실된 자세로 카메라앞에 서고 있는데…』

말끝을 흐리는 尹양。 파리에서 자상한 모정을보이는 尹양은 부군 白建宇씨가 9월중으로 국내에서 음악회가 예정돼있어 그때 가족이 만나게될 것이라고 말한다。

「저녁에 우는 새」는 목장을 경영하는 중년미망인과 살인혐의로 쫓기는 연하청년과 사이의 애정과 갈등이 줄거리。 金洙容(감독)·鄭一成(촬영)·車正男(조명)트리오가 참여하며 尹양의 상대역은 崔閏哲。

啓聖高 金禮洙 헤비級서 우승
中高유도폐막

제10회 추계전국중·고유도연맹전이 20일 각체급 개인전 결승을 마치고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폐막되었다。 이날 고등부헤비급 결승에서 啓聖高의 金禮洙는 동향의라이벌 진외출(영신고)을 위누르기 한판으로 꺾고 우승했으며 하프헤비급의 구자용(비봉고)도 유정호(부산체고)에 한판승、패권을 잡았다。 또 하프라이트급에서 유명구(원광고)가 서형규(부산체고)에 허버다리 후리기로 유효를따내우승했다。

啓聖 13개大會우승

啓聖高는 19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전국유도 우수고교 4강전에서 釜山體高·永信高를 차례로 꺾고 우승、지난 80년4월 춘계연맹전이후 13개 전국대회를 석권했다。

啓聖高는 金鍾燦·金敏燁·金禮洙·黃光勳·朴般圖등3년생들의 선전으로 釜山體高와 永信高를 각각 5―2로 가볍게 눌렀다。

맛사지

거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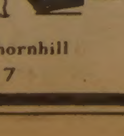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 889-9757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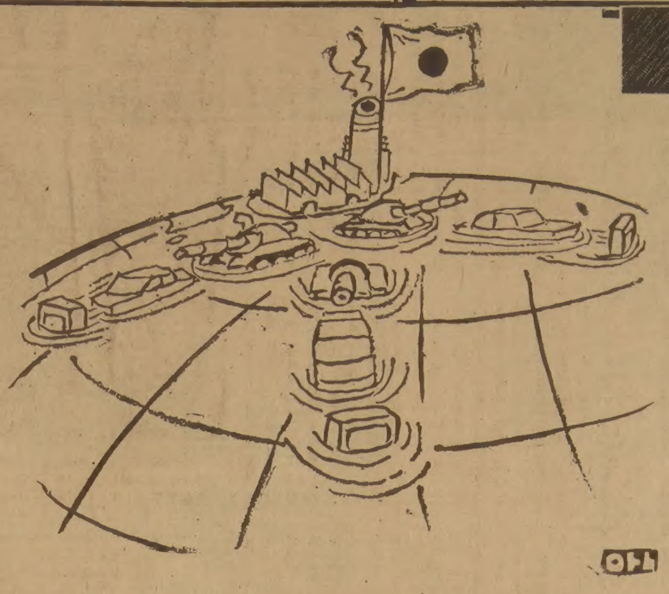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영호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두꺼비 漫評



電子제품./ 자동차./ 戰車./ 世界재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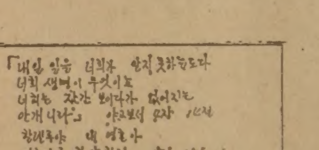
동해에 대춘놈에 하다였어 파괴고…

金堂 살인마 朴鐵雄의 獄中 최후 手記

"어쩌다 짐승보다 못한 짓을…" (下)

본지 單獨 입수

골동상 부부와 운전사등 3명을 자기집으로 유인, 살해한 다음 자기집 마당에 석달동안 묻어뒀던 金堂사건의 주범 朴鐵雄—. 그는 79년 9월28일에 검거돼 지난 7월 자신의 눈과 신장을 하나님의 복음사업에 써달라는 참회와 유언을 남기고 사형대에서 이 세상을 마쳤다. 술과 여자, 허세와 방탕으로 집안 재산까지 털어먹고 착한 부모와 성실한 형제의 가슴에 못을 박은 파렴치한, 희대의 살인마가 죄값을 치르고 떠난 것이다. 이 세상 누구도 朴의 죽음은 당연하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죄질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朴은 죽기 전 옥중에서 다 늦게나마 성경에 의지하고 빗나간 영혼의 구원을 애걸했던 참회의 눈물이 우리를 안타깝게 할 뿐이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6-1
朴鐵雄

◇朴鐵雄의 옥중 기도문과 자필 사인.

■집안 재산 털어먹고…

내 처와 헤어질 당시에 나는 재산을 거의 털어 먹었고 좀 남았던 것도 곧 다 써버렸다. 부산에 내려가는 수밖에 없었으나 차마 갈수가 없어서 어영부영 지내다 모 개인회사에 간부로(기획실장) 취직했다. 자금사정이 시원치 못한 회사였다. 얼마 뒤 다 팽개치고 72년 부산으로 내려갔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서울에 있던 H화학 사장을 부산시내에서 만났다. 내가 다니다가 그만둔 그 회사였다. 재산을 재정비하여 부산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했다.

나도 일을 하기로 하고 일을 했으나 무담이 지나도 월급이 없었다. 나는 사장소유의 TV를 자주 가던 식당에 보관시키고 서울에서 사장이 내려오면 찾기로 하고 돈을 빌어썼다. H화학 사장은 그것을 곧장 고발해 버렸다.

부산교도소에서 1년의 형을 지냈다. 출소후에 집에서 몇달간 휴식을 취하고 선배님의 도움으로 부산해원노조에 취직이 되었다. 그것이 74년3월이었다.

내가 맡은 일은 해외취업(상선이나 어선)을 희망하는 자의 자격여부를 검사하는, 다시말해서 취업등록카드 담당이다.

월급안줘 社長TV 담보로 돈썼더니 社長이 고발해 1년징역

비공식적으로 상선에 승선시켜주면 사례금이 30만원이었다. 몇사람을 그렇게 해서 승선시켰다. 그러자 소문이 퍼리를 물어 나에게 의뢰해 왔다. 부탁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일단 받았다.

수중에 돈이 들어오자 지금까지 착하게 살겠다면 생각도, 성실하고 검소하게 살겠다던 생각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압되어왔던 욕망이 폭발하듯 다시 또 부산시내의 나이트클럽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술과여자…허세와방탕

취업시켜 주기로 하고 받은 돈은 나이트클럽에서, 호텔에서, 여자의 품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매일밤 그렇게 사라져 버렸다.

취업을 부탁한 사람들은 독촉하기 시작했으나 교제할 돈을 다 쓰고 없었기 때문에 미루는 수밖에 없었다. 그중에 한사람이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고발하겠다고 사무실에 찾아와서 펄펄 뛰었다. 내일아침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돌려보내고 나는 다음날 74년9월4일에 직장을 내팽개치고 무작정 상경했다.

부산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미스 K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았다. 그집의 생활비는 K의 언니되는 분이 어느 살롱의 마담으로 그녀가 버는 것이 전부였다.

집에서 놀고 먹는 것이 미안하고 견딜 수가 없었다. 그보다도 내 자신에 대한 환멸감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다. 오늘날까지 여자들에게 물쓰듯이 돈만 써오다가 여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밥을 먹고 있다는 생각은 견딜수 없었다.

■막노동일도

미스 K와 함께 동대문시장에 가서 군복을 까맣게 염색한 작업복을 한벌 샀다. 다음날부터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신축장 테니스코트 꾸미는 현장에서 막노동일을 시작했다. 일당 1천3백원이었다. 새벽 6시에 작업이 시작되고 저녁 6시에 마쳤다.

첫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 미스K는 울었다. 그녀의 어머니도 가슴 아파했다. 그의 온가족들도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지금 간절하다. 특히 미스K는 행복하기 바라고 건강하기를 빈다. 생전처음 땀흘리고 잔디를 파고 흙을 나르고 일한

◇金堂주인 鄭海爽씨부부와 鄭씨의 운전기사등 3명을 유인·살해한 다음 자기집 마당에 암장했던 朴鐵雄.

A경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부디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십시오…선생님 위해 기도 하겠읍니다

사정이 여의치 못해 생각나는대로 가슴속에 떠오르는대로 일곱시간에 걸쳐 이 글을 썼읍니다. 제 사건을 담당하신 선생님께 처음에는 거짓을 말했었으나 나중에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읍니다. 오히려 어떤 것은 더 보태어진 것도 있읍니다.

사실만을 파헤치시려고 애쓰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제동생과 처는 제게 휘말린 것을 믿어주십시오. 그들은 전연 범행의사를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생님, 주님의 어떤 섭리로 제가 선생님께 조사를 받게 됐는지 전 모릅니다. 전 선생님과 가족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읍니다.

선생님께 간곡히 하나만 부탁드리겠읍니다.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으십시오. 온가족도 주예 수 믿으시고 구원받을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A경위님.

만약 선생님이 몇시간후에 확실히 죽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세상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없읍니다. 지위, 명예, 돈 아무 소용없읍니다. 부디 예수 믿으시기 빕니다.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겠읍니다.

선생님과 사모님 그리고 가족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979·10·7

朴鐵雄 배상

트로피
골프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 패
메 달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캐다록에서 50% OFF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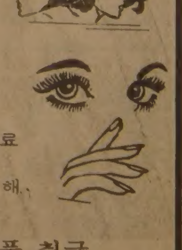
한번오시면
계속 오시게 됩니다
★★★★ 서울식품서부지점 ★★★★
개업특별세일
배추김치 · 총각무 · 파김치 · 부추김치 ·
오이소백이 ● 큰 병 $6.99 ~~$9.50~~
● 작은병 $4.50 ~~$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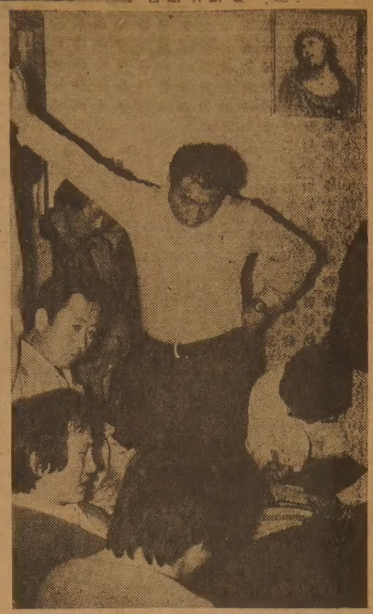
	SPEC	REG.
♧ 북어포	1.25	~~1.55~~
♧ 마른미역	1.99	~~2.50~~
♧ 물미역	.99	~~1.29~~
♧ 소 면	.89	~~.99~~
♧ 냉 면	.99	~~1.29~~
♧ 도라지	2.49	~~2.95~~
♧ 불오징어	.85	~~.99~~

※ 갈비 · 불고기 · 배추 · 무우는 도매가격으로 제공
쌀 { 신품 / 대한 쌀 / 가주미 장미표 / 국보 / 경기미 } 사실때 는 삼양라면이나 삼양칼국수 3봉지씩 무료제공합니다. 쌀도 최저가격으로 팝니다.
박 영 조
주소 : 1391 WESTON RD. ☎ : 243-9544

MLS
HWANG 주식회사 황운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VARIETY STORES
주매상 $14,000 Rent $4,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14,500 Rent $5,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8,500 Rent $800 4년+5년 가격 $110,000
주매상 $7,000 Rent $1,720 4년+10년 가격 $75,000
VARIETY STORE와 BUILDING
1)주매상 $11,000 코거빌딩 다운타운, 아파트 5채, 가격 가게 $129,000 빌딩 $269,000 현금다운 $150,000,00
2)주매상 $7,500 코거빌딩 다운타운 가격 가게 $70,000 빌딩 $360,000 아파트 4채 현금다운 $200,000,00
DONUT SHOPS
1)주매상 $8,500 Rent $2,250 $350,000
2)주매상 $6,500 Rent $3,000 $200,000
VARIETY STORE LOCATION
1) indoor Mall Rent $7.00/SQF, 5 Years+5 Years Side 2100 SQF, 2)개인 Building Rent $6.00/SQF, 1500SQF, 5 Years+5 Years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TEL(416)449-8644~5(B) · 286-1548(R) M3B 1Z3

ANNIE'S 미용실
확장이전개업스페샬
과거 Willowdale 지역에서 Downtown 쪽으로 업소를 확장이전해서 여러분을 모십니다.
〈특별봉사기간〉 9월10일까지
◎ 40% OFF
—남·녀 커트
—머리 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남·녀 파마
—매니큐 전문
—얼굴맛사지, 노화방지
—신부화장
—잔주름제거, 여드름 치료
※차편이 불편하신분을 위해, 차편 제공 가능.
※불란서 고급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 : 463-9071 (퀸 × 브로드뷰)





◇朴鐵雄이 검거되던 당시의 朴의 집 안방—. 예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朴은 이 방에서 金堂부부를 묶고 입을 틀어막은 다음 살해했다.

해외 취업 사기로 돈생기자 다시 나이트클럽 출입

한달간 월부 책장사해 百여만원벌고… 상무로 취직

것이 나는 기뻤다.

그렇게 7일을 일 했다. 그런데 일을 시키는 속에서 자꾸만 내게 막일을 찾아보라고 했다. 이런 막노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작업능률이 다른 사람과 차가 나서그랬다고 생각한다. 막노동일은 힘만으로 되는게 아니었다. 거기에도 요령이 필요했는데 나는 작업요령을 알수가 없었다.

결국 7일만에 그만두고 신문광고를 보고 서적출판 회사에서 간부사원 모집하는 곳에 찾아갔다. 찾아가 보니 책 월부회사였다. 미스K의 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 밥을 먹기보다는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벌어서 미스K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에 월부책을 팔기로 했다.

팔수 있는 대상이라야 친구들 뿐이었다. 내 학창친구들을 회사로 찾아 다녔다. 내가 책을 파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는 친구, 오히려 격려해 주는 친구, 여러 형태였으나 다들 책을 사주었다. 1개월만에 월부책장사를 그만두었는데 한달간 책을 판세 수당은 1백여만원이 되었다. 곧 나는 W실업주식회사에 상무로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다.

W실업에 근무한지 1개월여 채 되기전에 나는 필동에서 영업용 택시에 받혀 오른발 무릎이 골절되었고 근육도 끊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필동소재 성심병원 외과병동에 수술후 입원했고 8개월 가까이 치료했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퇴원했다. 현대의학으로는 더이상 치료할 수가 없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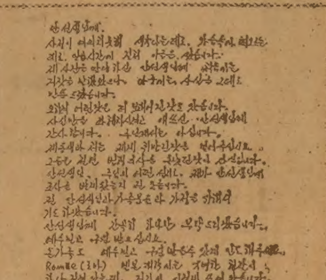
퇴원후에 미스K의 집에 또 숙식했다. 입원기간중에도 미스K의 정성은 지극했었다. 참으로 착하고 좋은 여자였다.

어느 사람의 소개로 침뜸을 하는 돌팔이의사에게 침을 맞게 되었는데 치료의 효과는 없고 다리는 더 아프던 차에 전에 H화학에 근무할때 회사에 가끔 와서 면을 익히게 된 J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교간 교통사고를 당한것과 돌팔이 침뜸꾼에게 치료받은 과정을 듣더니 J는 그 돌팔이를 찾아가서 자기가 애기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해서 함께 그집을 찾아가 J는 자기가 시경 강력계형사라하고 그 돌팔이의사에게서 40만원을 받아냈다.

그돈은 둘이서 분배해서 썼다.

■세번째는 공갈로잡혀

그런데 며칠후에 나몰래 혼자 찾아가서 허가를 내준다는등 갖가지 공갈을 하다가 체포되었고 나도 체포되었다. 두번째 찾아간 것은 전연 내가 모르는 것인데도 나는 전과가 있었기때문에 두번째도 내가 시킨것이 되어버렸다. 나는 결국 교사한 죄가 되어서 76년1월21일 구속되고 2년6월의 형을 받게 되었다. 세상에 허술한데라곤 그 어느곳에도 없었다. 친구의 책을 한번 훔친 죄로 전과자가 된후 나는 이 사건으로 도합



◇A경위에게 남긴 朴鐵雄의 마지막 편지의 일부.

◇피살된 金堂부부❶와 운전사❷.

교통사고로 치료받다가 돌팔이 침뜸꾼에 걸려 더 악화

강력계 형사詐稱 친구와 함께 공갈해 돈욹어 나눠 먹어

3번의 전과기록을 갖게된것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영등포교도소로, 또 그곳에서 군산교도소로 이감을 갔다.

군산교도소에 이감갔던 76년1월에서 12월까지 미스K는 물심양면으로 나를 위해 애썼다.

그때까지도 나는 부산 내 가족들에게 내 불행을 도저히 말할 용기가 없었다. 미스K는 경제력이 없었기때문에도 저히 더이상 내뒤를 봐줄수가 없었다. 76년12월24일 크리스머스 카드 한장을 보낸 뒤로 소식은 단절되어 버렸다.

무엇보다도 고독해서 견딜수가 없었다. 나는 내동생 천웅이가 있는 학교로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보낸 1주일쯤후 동생이 면회를 왔다.

■부모가 면회

『형님 어찌시다가 이렇게 되셨읍니까. 그리고 왜 이런 모습을 저에게 보이십니까. 형님은 집안을 가난과 고통 속으로 몰아 넣었읍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니 형님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금 역경을 참고 견뎌야됩니다. 형님이 부탁했던 돈 가져와서 영치시켰읍니다. 물건들도 영치시켰고… 다시는 저에게 편지 내지 마세요. 편지와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속에있는 형님보다 밖에서 형님을 보는 제가 더 괴롭습니다. 이해 하십시오. 몸조심 하세요.』

면회실에 들어서면서 이말을 하던 것이 지금도 내귀에 생생하다.

동생 천웅이는 나를 사랑했고 나로 인해 괴로와했던 것이다. 지금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섭섭했었다. 그만큼 나는 이기적이고 나 밖에 몰랐다. 그후에 여러번 편지를 보냈으나 회답이 없었다.

어느날 어머니께서 아버님과 함께 면회를 오셨다. 늙으신 부모님을 뵈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죄송스럽고 서럽고 괴로와 견딜 수가 없었다. 내동생이 면회를 오지 않는다고 내가 편지에 오기를 부려서 써보냈더니, 그때까지 내가 교도소에 있다는 것을 숨겨 오던 동생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오신 것이다. 돈만 물쓰듯이 쓰는 버릇이 남아서 교도소에서도 돈을 쓰고 싶어 동생을 괴롭혔던 것이다.

부모님과의 면회가 끝나고 오면서 나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수가 없었다.

나는 땅바닥에 앉아 통곡했다. 몸부림쳐봐도 슬픔을견딜수가 없었다. 틀어놓은 수도꼭지처럼 쉴새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방에 돌아와서 나는 생각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나는 살고 있는가. 어디서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끝없이흐느끼며 울었다. 부모와 형제들과 사회와 이웃에 지은 죄를 생각할때 진정괴로왔다.

■성경공부에 열올려

나는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 아, 어떻게 위대하고 이토록 성스럽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몰랐었다던가. 나는 눈물속에서 신구약을 전부 보았다.

그 당시에 裡里에 있는 J교회의 L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기위해 벌금2만원을 일부러 지불치 않고 20일간군산교도소에 들어왔다. 그분은 내방에 들어오셨었다. 나는그분께 성경말씀을 듣고 찬송을 함께 부르고 했다. 그분은 20일만에 출소하였다.

그분이 출소하기 10일전부터 나는 전도하기 시작했다. 수없는 형제들이 회개하고 예수믿게 되었으며 전과13범, 전과 18범, 숭한 전과의 베테랑들이 회개하고 예수믿게 되었다.

군산 교도소에서 내별명은 샌터클로즈였다. 불쌍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살아온 형제들에게 내힘껏 위로가 되어주려고 애썼다. 그러나 내마음은 늘 부족하였다. 난 군

게 결심했다.

78년7월28일 군산교도소에서 난 출소했다. 군산교도소 정문앞에는 전날 오셔서 여관에서 주무신 어머니께서 새벽에 와 계셨다.

어머니는 50평생을 불교에서 부처님을 한결같이 모셔 온 분이다.

난 어머니를 교도소정문앞에서 택시에모시고 함께 裡里에 있는 J교회를찾아 떠났다. 교회에 계신분들은 나를 기다리고들 계셨다. 그날 어머니와 나는 강대상에 올라 간증하였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생동안 올바르게 인도하려 애썼으나 되지않았는데, 내아들이 예수민고 이렇게 올바로 살겠다니 내자식을 참된 길로 인도해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간증했다.

다음날 아침 교도소에서 기르고 나온 머리를 중학생처럼 박박 깎아 버렸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내 모습을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시며 내 손을 잡고 목놓아 우셨다.

그날 부산으로 어머니는 내려가셨다.

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보았다.

이 지방 저 지방으로 집회를 다녔다. 교회안에 살고 계셨던 K집사님은 내 신앙의 어머니셨다. 극진히 나를 보살펴 주셨고 그분이 쓰시던 방을 내게 내어주셔서 난 그 방에서 자고 K집사님은 교회안에서 거의 매일 기도하시고 주무셨다. 머리를 박박 깎고 바지 저고리를 입고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도 그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늘 충만했다. 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느꼈다.

그렇게 몇달이 흘렀다. 어머니께서는 종종 오셔서 필요할때 쓰라고 집사님께 돈을 주고 가셨다.

10월말께라 생각된다. 어느날 L전도사님은 청년2명을 데리고 강대상에 섰는데 그 청년들을 하늘에서 온 지식의 신이라고 소개했다.

그청년들은 강대상에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교인들에게 L전도사는 오늘날 마지막으로 오신 재림 예수라고 부르짖었다. 나는 도저히 그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신앙에 회의

또 얼마 지난후에는 세여자를 강대상에 세웠는데 처음에는 신앙촌에서 도망나온 여자들이라고 하더니 그 세여자와함께 한방에서 이틀인가 지난뒤 주일예배때 다시 또 그 여자들을 강대상에 세워서 이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천사들인데 한 여자의 이름은 「내목시」 또 한 여자는 「내꿈」 나머지 여자는 「내사랑」이라고 하였다. 그 세여자들은 각자 강대상에서 설교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전 너무나 광신적이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괴상한 것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종교에 회의를 느끼기시작했다. 내가 세상의 온갖 욕망을 저버리고 평생을 가고자 했던 신앙의 길이 이것이었나 생각할때 울분이 치솟기 시작했다.

11월에 나는 경희대학교 의료보건원에서 치아를 치료받고 있던 관계도 있고 회의와 울분속에서 상경했다.

■그날호스티스가 내아내

그날 K집사님의 막내아들과 다른 친구 B등과 함께 백남호텔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었다. 그날밤 내 곁에 왔던 호스티스가 현재 내 아내였다.

그날 밤 나는 그 호스티스와 함께 그녀가 사는 집으로 가게 되었다. 사는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다. 방 한칸 20만원에 6만원 월세방이었다.

성경 보고 갈등, 예수 믿어 傳道… 교도소서 붙은 별명 "샌터클로즈"

"나는 이세상의 어떤 말로써도 용서받을수 없다는걸 알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고 있읍니까?』

그녀는 부끄러워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털어 놓았다. 대강 그것을 간추려 보면 이런 것이다.

아내는 고등학교 3학년때 성당앞에서 건달에게 당했다. 그녀는 자기몸은 버려졌으니까 당연히 그 남자와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 남자와 결혼했고 딸 아이를 낳았으나 사흘동안을 먹을게 없어 방안에서 굶고 있어야 했고 옆방 아주머니가 주는 쌀 한되를 안고 몸부림치며 울었다. 그래도 그 촌건달은 보이지 않았고 할수 없이 딸을 들쳐 업고 평택에서 친정인 인천집으로 찾아 들게 되었다.

그러나 친정집식구들은 쌀쌀맞고 매정했다. 그래도 굶지는 않으니까 친정에서 하는 여관업을 도와 청소며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해냈다.

■아내의 불쌍한 과거

고생은 참을수 있었으나 친정식구들의 몰인정과 외면은 견딜수가 없어서 다시 아이를 둘쳐업고 평택으로 남편을 찾아갔다. 그러나 매일밤 술을 퍼마시고 두들겨 패고, 가난과 남편의 구타를 도저히 견딜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먹고 살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살아보겠다. 그렇게 그녀는 결심하고 상경했다.

세월이 흘렀고 돈도 꽤 모았다. 그러나 소위 기둥서방이란 작자에게 모두 털리고 말았다. 다시 또 벌기 시작했다. 좀 돈이 모였다 했을때 다시 사귄 남자는 더 악질이었다. 벌어오는대로 착취하고 빚을 얻어달라 강요해서 또 착취했다. 몸이 아파 밤에 직장을 못나가면 칼로 허벅지고 어깨고 마구 찔렀다. 내 아내는 몸에 그때 당한 칼자국이 많다.

나중에 집안어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놈은 도망을 쳐 버리고 말았다.

그놈이 도망쳐버린 2개월 뒤에 나를 만나게된 것이다.

난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주고 싶었다. 내 사랑이 그녀가 체험으로 소유한 온갖 아프고 수치스럽고 괴로왔던 과거의 상처를 가시게하고 잊게하기 위해 그녀에게 대하처럼 흘러 들어갔다.

폐허와 같은 과거를 가진 여자 였지만 몇개월이 지난후 아내는 놀랄만큼 여자로 변모되어갔다. 내 아내는 가끔 「미안해」 하는 빛으로 부끄러워하면서 『여보 내가 깨끗한 처녀로서 당신과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말해왔다. 그러면 나는,

『아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나의 처녀야. 당신은 분명히 기억해야돼. 그 육체가 이성을 경험했느냐 안했느냐가 처녀 혹은 비처녀가 아니라 그 육체를 움직이는 영혼이 내게 참된 사랑을 느끼고 또 받는다면 그게 바로 처녀지. 당신의 지난 모든 과거는 한갓 육체의 방황이었을 뿐이야.』

■늘 마음속에서 용서를

늘 이렇게 아내의 말에 답해 왔었다. 그래도 아내는 미안해 하였으나 시간의 흐름속에서 내 진정한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내 아내 자신도 참으로 처녀가 되어 갔다.

난 내아내를 사랑했고 지금도 뼈저리게 사랑하고 있지만 아내를 위해서 사랑에 성실치 못했던 것을 용서받고 싶다. 끝까지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한 것을 용서빌고 싶다.

가신 영혼들과 그분의 자녀들 그리고 유족들께는 이 세상의 어떤 말로써도 용서빌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맘속에서 용서를 빌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엎드려 용서를 빌고 싶다.

■꼭 세가지 부탁

지금 내 아내가 내 앞에 있다면 난 세가지를 꼭 당부하고 싶다.

첫째 꼭 예수님 믿어 달라는것.

둘째 언젠가 교도소를 나가게 되면 내 부모형제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행복을 개척해주기 바라는 것.

세째 내 아내가 친정에서 받 설움을 하여 그녀의 아버지가 고발했으나, 그녀의 아버지는 물론 내 아내도 조금도 원망치 않는다는것.

그리고 내가 못난 탓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런 고역을 치르게 한 것을 용서 빈다는 것, 이상 세가지를 꼭 부탁하고 싶다.

내 부모님이나 내 형제들께 그리고 형수와 제수씨와 매제와 모든 조카와 그리고 예전 내 처와 자식에게는 어떻게 용서를 빌고 가야될지 모르겠다.

나를 기억하는 벗들, 후배, 이웃들에게는 머리 숙여 깊이 용서를 빈다.

1979·10·7

朴鐵雄

<끝>

가족과 함께 두뇌 체조를

뉴스 낱말 풀이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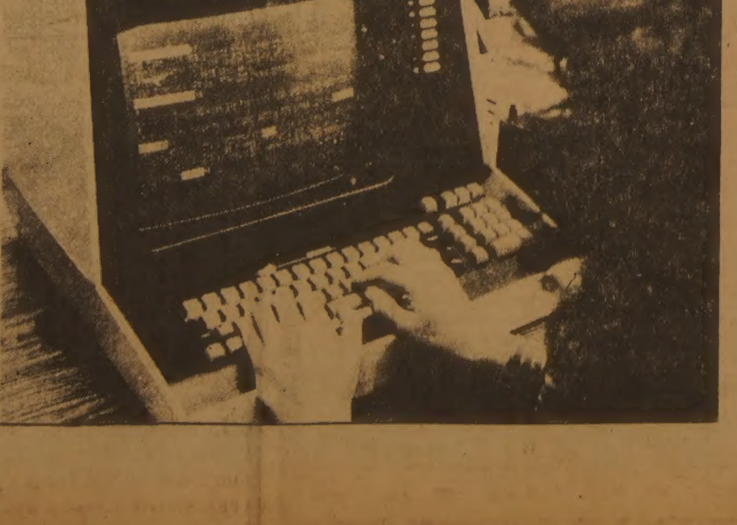
<제19회 퀴즈>

1		2	■	3		4
	■	5	6		■	
7	8	■		■	9	
■	10		■	11		■
12		■	13	■	14	15
	■	16		17	■	
18			■	19		

<힌 트>

■가로
1. 경기가 뒤집힘
3. 소재를 이동할 수 없는 재산
5. 의정부시 북쪽 소재, 최근에 市로 승격했음
7. 별이나 비를 막기 위해 처마끝에 붙이는 작은 지붕
9. 바다에서 나는 해초나 고기 종류
10. 바캉스 맞아 도시 탈출
11. 벼를 거두어 들임
12. 펄벅의 작품
14. 목욕통
16. 물건값등 돈을 주고 난뒤 받는 것
18. 난봉을 부리는 남자
19. 용의 턱아래 있다는 구슬

■세로
1. 미국 개척시대 여객·우편물을 싣고 정기적으로 다니던 마차
2. 동양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지방
3. 경기도 소사읍에서 市로 승격한 곳
4. 산에서 나는 나물
6. 중고생들 교복과 함께 자율화한 것
8. 중세 유럽에서 양가죽으로 만들어 종이 대용으로 쓴것
9. 피서철 마다 바다에 가서 즐기는 것
12. 서류나 편지등을 대신 써주는 사람
13. 말을 타는 사람
15. 우주 간의 만물을 만든 신
16. 젖먹이 아기
17. 물건을 사로 줌



컴퓨터
사진식자
서비스안내

● 각종 간행물
● 도서출판
● 신문제작
● 교회주보 등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10배 이상의 능률을 올릴수 있는 컴퓨터사진식자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해 드릴수 있읍니다.

자세한 문의는 533-236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토 한국일보 지사

신문에 안난 現場

한국일보 事件 기자 수첩

소매치기, 강도등 흉기를 휘두르는 강력범과 위험을 무릅쓰고 맞서는 의기의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면도칼을 휘두르는 버스속 소매치기를 피해자와 경찰이 합세해 붙잡았고 전동차 속의 소매치기를 목격자와 피해자가 합세해서 붙잡았다. 또 길에서 행인의 목을 조르고 시계를 강탈해가는 10대강도를 목격한 택시 운전사가 택시를 버리고 강도를 추격해 붙잡았다. 남의 일을 강건너 불 처럼 여기지 않은, 이름 없는 시민들의 숨겨져 있는 용기가 용광로 처럼 끓어 오르고 있음을 이번주 「기자 수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強力犯 잡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轟音에 놀란 진도개의 줄에 끌려가 차에 치어죽은 老人

▲지난 3일 새벽3시35분께 여의도를 1백m쯤 앞둔 서울대교위에서 개를 끌고 새벽산책을 하던 李道成씨(72·서울시마포구도화동 349의14)가 뒤에서 달려오던 서울1바 8910호 포니택시 (운전사 최재영·32)의 급정거 소리에 놀란 진도개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바람에 그대로 개줄에 끌려나가 택시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택시운전사 崔씨에 따르면 李노인은 인도위를 걷고 있었고 택시는 인도옆 3차선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새벽어스름에 개가 갑자기 차도로 뛰쳐나오는 것을 발견,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운전사 崔씨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속했다.

■동생봐달라다 형도철창

▲동생이 소매치기를 하다 경찰에 검거되자 담당형사에게 『동생을 잘봐달라』면서 금품을 주려던 형이 뇌물공여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형제가 나란히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금품을 주려던 사람은 崔鍾萬씨(38·서예실경영·서울성동구성수동354의1)로 동생인 鍾文씨(30·전과3범)가 지난9일하오2시께 영등포구영등포동4가48 버스정류장에서 30대여인의 5돈쭝짜리 금목걸이(싯가 22만원)를 소매치기하다 검거된것을 알고 10일상오9시께 영등포경찰서로 찾아갔다. 형 鍾萬씨는 金基鎬순경(43)을 다방으로 불러내 『동생을 잘봐달라. 은혜는 평생 잊지않겠다』며 현금 2백50만원을 내놨다가 거절당하면서 자신도 철창신세를 지게된것.

2백50만원의 뇌물을 거절한 金순경은 16년 근속자로 지난해에는 폭력배검거실적전국1위를 차지, 대통령표창을 받는등 지금까지 26회의 수상기록자라고.

■격투끝에 치기배잡아

▲지난 3일상오10시50분께 서울강남구반포동주공아파트3단지앞에 서있던 동서교통소속 36번 시내버스안에서 소매치기하던 朴炳天씨(38·전과4범·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603)가 승객 金龍南씨(56·경기도성남시시흥동76)와 서울강남경찰서 대공과소속 金相鎬순경(44)에게 격투끝에 붙잡혔다.

범인 朴씨는 이날 버스안에 서있던 金씨의 바지뒷주머니에서 현금5천원을 훔쳐 내다 이를 알아챈 金씨가 『도둑이야』 소리치자 정차한 버스의 출입문을 열고 도망쳤다. 때마침 일을 마치고 본서로 돌아가던 金순경등에 목격돼 金순경과 金씨는 범인과 대항, 격투를 벌였는데 범인이 휘두른 면도칼에 의해 각각 전치 10일과 7일의 부상을 입었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지난3일 朴鍾國씨(25·주거부정·전과3범)를 영리를 위한 약취유인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朴東錫씨(28·주거부정)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31일 새벽 1시께 서울종로구창신동 모 전자오락실에서 만난 崔모양(14) 金모양(14)등 2명을 놀러가자고 꾀어 가까운 여인숙에 투숙시켰다가 이틀날 하오4시반께 경기포천군영북면운천리 제일다방에서 25세가량의 남자에게 30만원을 받고 넘겼다는 것이다.

■장난감권총주겠다 꾀어

▲서울강서경찰서는 지난9일 고물행상 朴鍾伯씨(26·서울시 강서구신월동182의13)를 미성년자약취유인및 살인·사체유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7일 밤10시10분께 강서구화곡동883의3앞 골목길에서 친구3명과 함께 놀고있던 이동네 김모씨(41·세탁업)의 3녀 화숙양(5·가명)에게 미리 갖고있던 플래스틱제 장난감권총을 주겠다고 꾀어 화곡1동911번지 콩밭의 변천막으로 끌고가 추행한후 金양의 입안에 흙을 넣고 코를 막아 숨지게한 다음 쌀부대에 넣어 옆에 있던 드럼통에 버리고 달아났다는 것이다.

<그림·權大雄>

버스·전동차 속서 면도칼 휘두른 소매치기 잡고

路上서 시계 강탈해가는 10代강도도

▲서울강동경찰서는 지난9일 金모군(18·무직·강동구 이동)등 5명을 특수강도·강도상해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洪모군(18·무직)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 중학동창생들로 같은 동네에 사는 이들은, 지난 6월7일 밤 0시5분께 잠실시영아파트 앞 길에서 서울4바5764호 한 시택시(운전사 조영원·38)를 타고 인적이 드문 석촌호수 주변으로 유인한 뒤 운전사 조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8만원을 빼앗아 달아났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지난 9일 전동열차에서 남의 지갑을 소매치기한 崔東圭씨(50·주거부정)를 상습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崔씨는 8일 상오 11시50분께 성북발 인천행 전동열차가 구로역을 떠나 개봉역에 거의 이르렀을 때 승객 文照煥씨(37·회사원·경기 안양시 석수동 한도아파트 7동 201호)의 바지뒷주머니에서 자기앞수표등 모두 2백35만원이 든 지갑을 몰래 빼내 개봉역에서 내렸는데 범행현장을 목격한 金泰圭씨(20·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306)가 피해자 文씨와 합세, 崔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자기앞수표등 모두 2백35만원의 돈을 되찾은 文씨는 『회사공금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몇달분 봉급을 털어 넣을 뻔 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절도등 전과9범으로 13년간을 감옥에서 보낸 범인 崔씨는 경찰에서 『형무소에 들어 갔다 나올 때마다 새 출발을 다짐했으나 떠돌이 신세에 가진 재주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뿐이라 또 다시 일을 저질렀다』고 변명.

네다바이꾼잡은피해자 경찰서"관할아니다"미뤄 밤새 돌아다니고

▲피해자가 잡아다 준 내다바이꾼을 경찰이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미루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매리고 밤새도록 경찰서를 찾아다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2일밤 11시반께 서울중구장충동 앰배서더호텔 앞에서 해성한서 서울4바6723호 포니택시(운전사 김형곤·28)를 탄 安起洙씨(25·서울동대문구신설동127의6)등 3명은 목적지인 용두2동까지 차구려시 자 싯가 5천원짜리 손목시계를 고급시계라고 운전사 金씨를 속여 5만원을 네다바이해 달아났다.

운전사 金씨는 뒤늦게 속은 사실을 알고 뒤쫓아가 安씨를 붙잡는데 성공, 청량리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대로 돌려 보냈다는 것.

운전사 金씨는 安씨를 데리고 동대문경찰서로 갔으나 여기서도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보라고 말해 다시 安씨를 동대문경찰서로 데려가 신고, 安씨는 5일 사기혐의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는 것.

운전사 金씨는 『도망칠 위험이 있는 사기범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이 신고를 받지않는 처사는 이해할수 없다』면서 『이때문에 밤새도록 경찰서를 헤매다가 영업도 못했다』고 한숨.

■경찰관들이 놀음판

▲8일밤10시10분께 서울구로구시흥3동278의3 모모의상실안에서 이 의상실주인 柳泳東씨(33)가 몸에 석유를 끼얹고 분신자살했다.

자살한 柳씨의 형 濟先씨(37·상업)에 따르면 柳씨는 1년전부터 경영해온 의상실이 불황으로 영업이 잘 안되는 데다가 마땅한 혼처가 나서지않아 이를 비관해 왔다는것.

▲지난 9일하오3시께 서울 구로구구로1동 409의60 구로소방서옆 대신장의사 내실에서 구로경찰서소속 朴모경위, 朴모경장등 4명의 경찰관들이 고스톱화투판을 벌였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달려나온 시경감찰반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8일밤 당직근무를 마치고 9일상오 잔무처리후 하오2시께 구로소방소옆 기사식당에서 점심을 먹은뒤 한적한 장의사로 가 판돈 3만원가량의 화투놀이를 했다는 것.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밤을 꼬박 새운데다 점심뒤의 무료함을 달래기위해 잠깐동안 장난삼아 화투장을 잡은것인데 파면사유까지 될수있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며 한숨.

▲생후 3개월된 아기의 엄마가 절도혐의로 구속됐다가 울부짖는 아기를 보다못한 피해자와 주민들의 호소로 풀려났다.

光州지검順天지청은 지난 10일 절도혐의로 구속중인 尹모여인(25·여천군 남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석방. 어부인 남편과 생후 3개월된 아들등 세식구가 살고있는 尹여인은 지난7월22일 낮12시께 한마을 朴모씨(24)집에 놀러갔다가 아무도 없는것을 알고 안방에 들어가 옷장속에있던 현금40만원을 훔쳐 구속, 송치됐었다.

풀려난 金여인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 엄청난 죄를 지었다. 죄값을 달게 받기로 굳은 각오까지 했는데 뜻밖의 온정을 받았다』면서 새사람이 돼 朴씨와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하겠다고 흐느꼈다.

▲京畿道安養경찰서는 격투끝에 강도를 붙잡아 경찰에 넘겨준 덕수콜택시소속 서울1자2807호 운전사鄭秀石씨(35·서울시동대문구답십리동418의11)를 표창상신했다.

경찰에 따르면 鄭씨는 지난3일 새벽3시께 시흥군군포읍산본리입구에서 李모군(19·경남밀양읍)、金모군(20·주거부정)등 2명이 길을 가던 姜錫根씨(35·시흥군군포읍산본리516)의 목을 조르고 손목시계(싯가 4만5천원 상당)를 빼앗아 달아나는 것을 발견, 택시를 세워둔채 1백50여m나 추격, 격투끝에 李모군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애가 집나간 엄마닮아 생각나게 한다고 숨지게한 아빠도

毒劇物로 개잡아 보신탕집에 50여마리팔아

▲김해경찰서는 5일 어린 아들의 모습이 집을 나간 아내와 너무 닮아 아내를 생각나게 한다고 아들을 마당에 내던져 숨지게 한 朴준식씨(36·김해군이북면병동산1172)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

朴씨는 부인 金모씨가 3개월전에 가출해버린뒤 장남 현식(5)군과 차남 현호군(2)등 두아들을 키워왔는데 지난달 20일 하오4시께 술을 마시고 취한채로 2남 현호군이 아내와 너무 닮았다고 마당으로 내동댕이쳐 뇌부종및 뇌좌상으로 숨지게 했다는것.

▲群山경찰서는 지난4일 독극물로 개를 잡아 보신탕집에 팔아온 金양수씨(21·전북옥구군대야면복교리)등 5명을 독극물및 극물에관한 법률위반및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이들은 지난4월28일밤11시께 옥구군대야면지경리 최옥순씨(43)집마당에 있는 2년생 개에게 독극물을 섞은 돼지고기를 먹여 죽게한 뒤 이 개를 훔쳐 보신탕집에 파는등 지금까지 50여마리를 이런 방법으로 훔쳐 群山, 裡里등지의 보신탕집에 팔아왔다는것.

▲직행버스안에서 한 농촌 여인이 옥동자를 순산, 승객들이 축하의 환성을 올렸다.

지난8일하오7시께 서울용산터미널을 떠나 慶北尙州로 가던 한성여객소속 충북5아1752호 직행버스(운전사 정창학)가 淸州인터체인지를 지날무렵 승객 어정남여인(28·경북상주군중동면간상리)이 산기를 느끼고 진통을 시작.

30여명의 승객들은 즉시 차 앞쪽으로 모두 자리를 옮기고 버스 뒤편에 산실을 마련, 달리는 차속에서 10여분만에 아들을 순산케했던것.

옥동자의 첫 울음소리가 차안에 울리자 승객들은 찌는듯한 무더위도 잊은채 박수를 보냈고, 운전사 정씨는 아용 어불과 옷 한벌을, 소식을 듣고온 한성여객 尙州영업소장 김기열씨(43)는 면역과 산모집까지의 택시요금을 선물로 부담했다.

▲8일의 立秋가 지나고도 무더위가 극성을 떤 9일 濟州지방의 닭들이 석탄의 총애를 받았다.

음력으로 유월스무날인 여날 濟州도 각 가정에서는 아침식탁에 6만여마리의 닭을 올려놓고 무더위를 무사히 넘기게 해달라는 기원과 함께 식도락을 즐겼다.

立秋 다음날 닭을 잡아먹으면 무더위를 무사하게 보낼수있고 만병통치의 효과까지 본다는 여고장 고유의 풍속때문이다.

濟州도내 2개 도계장에서는 지난6월부터 하루평균 소보다 5배가 되는 1만1천마리의 닭을 잡았으며, 각 농가에서도 3만여마리를 잡는등 줄잡아 6만3천여마리가 처분됐다는것이다.

이때문에 도내50개소의 닭점앞에는 매일 닭을 사려는 손님들로 붐볐으며, 1kg당 1천8백원하던 닭값이 2천2백원까지 뛰어올랐다고.

■태백산 지방선 난로펴

▲太白山산간지방엔 여름이 없다. 무더위가 한창하더니 아침 저녁으로는 옷을 두겹씩 껴입어야 할 만큼 쌀쌀하다.

해발1천m의 太白市에는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인데 여는 太白市소동 9통1반의 동해광업소가 며칠전부터 난로를 피우게 시작한것으로는 설명되고있다.

太白市는 한여름 더위도 섭씨27도를 넘어서지 못할뿐 아니라 밤이면 기온이 뚝 떨어져 섭씨 10~15도까지 내려가 난로가 등장하게 된다는것.

『삼복 더위요? 계곡엔 벌써 가을 입니다. 김장용 씨앗도 벌써 파종했읍니다.』

동해광업소 노무계장 김경한씨(46)는 8월에 太白은 벌써 가을이라는 설명.

▲7일밤8시반께 서울종로구 관철동 13의8 대학촌주점(주인 조기원·37)에서 술을 마시던 경기성남시 유공업전문대학 전기과1년 朴杜天군(20·서울 도봉구월계동272)등 5명과 金모군(19·무직·부산시동래구연산3동)등 일행4명이 흉기를 휘두르며 편싸움을 벌여 朴군이 흉기에 찔려 숨지고 朴군의 친구 金勝範군(22·서울 동대문구휘경동)과 金군의 친구 金모군등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날 싸움의 발단은 釜山서 올라온 金군등 4명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숨진 朴군등에게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며 『조용 하라』고하자 朴군 등이 『왜 반말이냐』고 응수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던것. 여종업원이 주방으로 뛰어가 30cm 가량의 식칼 2자루를 들고나와 마구 휘두르자 싸움은 걷잡을수 없게 됐고 이바람에 朴군은 목에 깊은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졌다.

▲서울시경은 10일 시내 옥외수영장의 부당요금 징수와 정원초과행위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성북구정릉동산1 정릉제1수영장 주인 崔正洙씨와 정릉2수영장 주인 박진수씨등 2명을 공중목욕장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해당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

경찰은 또 정원을 초과해 입장객을 받았거나 수질검사기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스카이웨이수영장(정릉동 산5의1)、타워호텔수영장(중구장충동5)、장충수영장(장충동2가7의22)등 3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릉1수영장 주인 崔씨와 정릉2수영장 주인 朴씨는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로 입장객이 몰려자 대인은 1인당 1천원, 소인은 6백50원씩 받게된 입장료를 3백원~1백50원씩 더 받고 매일 정원의 2배가 넘는 입장객을 받아들인 혐의다.

스카이웨이 수영장은 정원을 2배이상 초과해 입장객을 받다가 적발됐고, 타워호텔수영장과 장충수영장은 수영장 관리지침에 따라 수질 측정기구인 비색기를 갖추지 않았다는것.

〈정리·崔升鎬기자〉

한국일보의 광고효과를 말해주는 한국 안내 광고란

해외걸작만화

"I'll let my wife convince you to stay for dinner, she's the persuasive one…!"

「집에서 저녁이나 들고 가게, 마누라가 붙마할거야」

<피서시리즈④>

"바캉스 갔다 오는 길이야"

김용화 (서울·동대문구 전농동 127 현대기획)

살림의 지혜

땀얼룩 예방 드레스나 셔츠의 겨드랑이 밑에 땀이 흘러서 얼룩이 지면 지저분해 보일뿐 아니라 남에게도 불쾌감을 준다.

동그란 모양의 땀얼룩은 어느정도의 세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땀의 얼룩을 예방하려면 새로 옷을 구입해 입기 전에 겨드랑이 부분 안쪽에 풀의 용액을 분무기로 뿌려 다림질을 해둔다. 이렇게 해두면 외출해 땀을 흘려도 풀이 땀을 흡수해주므로 세탁하면 깨끗이 없어지고 얼룩이 지지 않는다.

◇ ◇ ◇

모기향 알뜰사용법 도중에 부러진 모기향은 기구에 꽂을 수가 없어 사용하기 불편하다.

부러진 모기향이 많을때는 불이 붙은 모기향위에 포개어 놓으면 불이 차츰 옮겨 붙어서 연속적으로 사용할수가 있어 경제적이다.

◇ ◇ ◇

금간 장독 때우기 장이 담겨있는 독을 아이들의 장난이나 부주의로 깨뜨리는 경우가 있다. 장독에 금이 갔거나 구멍이 생겨 장이 흘러 나오면 누구나 당황하게된다.

이때 장을 다른 독으로 옮기느라고 시간을 끌다보면 힘만 많이 들고 장은 장대로 많이 새어 나간다.

이럴 경우엔 피마자씨를 구해 껍질을 벗기고 속알맹이를 금이 간 부분에 붙이고 손가락으로 다져두면 잘 떨어지지도 않고 장도 새어나오지 않아 훌륭한 응급조치가 된다.

◇ ◇ ◇

낡은 비닐호스 재생 연질의 낡은 비닐호스가 변질됐거나 밀착상태가 되어 있어 물이 잘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못쓰게 됐다고 버리지 말고 호스에 뜨거운 물을 통과시켜본다. 이렇게 하면 비닐호스가 부드러워지면서 신품처럼 다시 사용할수 있게된다.

◇ ◇ ◇

손끝의 가시빼기 손끝에 가시가 박힌 가시는 아무리 자아도 몹시 아프다. 이 가시를 빼려고 하면 아이들은 무서워 달아나기 마련이다.

이 가시를 아프지 않게 빼려면 냉장고의 얼음을 가시가 박힌 자리에 2~3분간 댄다. 이렇게하면 그 부분의 신경이 냉각되어 마비되기 때문에 아프지 않게 뺄수 있다.

운동화 말리는 법 운동화를 씻어 말릴 땐 속이 잘 마르지않아 시간이 걸린다.

이럴 땐 빈 맥주병에 운동화를 씌워서 말려본다. 물이 잘 빠지고 속까지 잘 마르며 게다가 보통으로 말리는 것보다 2~3시간은 더 빨리 마른다.

만일 운동화가 무거워 병이 쓰러질것 같으면 병에 물을 채운다. 물이 증발하여 잘 마르지 않는 일이 없으므로 아주 효과적이다.

당근껍질 벗기기 당근의 껍질은 단단하게 마련이다.

한번 데쳐서 다시 볶는 요리의 경우는 당근을 일단 통째로 데친 다음 껍질을 벗기면 쉽게 벗어지고 날것인 경우엔 수도물을 세게 틀어서 그 힘으로 벗기면 간단히 벗길수 있다.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민 병 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HAVE YOU MET JUDY?

「주디와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셨읍니까?」Have you met Judy? 이렇게 물어와 「안면은 많으나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지는 않았읍니다」라고 말하고 싶을때는 I've seen her but we haven't met.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보통 see는 보다의 의미이고 meet는 만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여러사람 앞에서 간단히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중의 하나는「제 이름은 김입니다」My name is Kim. 「시카고 은행에 근무하고 있읍니다」I'm with the Bank of Chicago. 「이자리에 오게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I'm glad to be here. 라고 하면 된다.

A : Jack, have you met Judy?
B : No, I haven't.
A : Judy, this is Jack.
B : How do you do, Judy? It's nice to meet you.
C : I'm pleased to meet you, Jack.
B : Are you a student here?
A : 잭, 주디와 인사를 나눴나요?
B : 아뇨.
A : 주디, 이분이 잭이예요.
B : 안녕하세요, 주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C :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잭.
B : 여기 학생이세요?
A : Bill, have you met Jim?
B : No, I've seen him but we haven't met.
A : This is my friend, Bill Jackson. He's with Bank of Chicago.
Bill, I'd like to introduce my roommate, Jim Smith.
B : How do you do? It's nice to meet you.
C : How do you do?
B : What was your first name again?
A : 빌, 짐과 인사를 나누었나요?
B : 아뇨, 안면은 있지만 정식으로 인사를 나눈 적은 없읍니다.
A : 이분은 제 친구인 빌 잭슨입니다. 시카고은행에 근무하고 있죠.
빌, 제 룸메이트인 짐 스미드를 소개해 드리죠.
B : 처음 뵙겠읍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C : 처음 뵙겠읍니다.
B : 이름이 뭐라고 하셨던가요?
A : Do you know Judy, Jack?
B : No, I don't believe we've met.
A : Oh, then let me introduce you to her right now.
Judy, this is my friend, Jack.
C : Hi, Jack. I'm glad to meet you.
B : I'm glad to meet you. Can't we sit down some and talk?
C : Sure. Let's sit over there.
A : 잭, 주디를 아세요?
B : 아뇨, 인사를 나눈 적이 없읍니다.
A : 오, 그러시다면 지금 당장에 소개해 드리죠.
주디, 이분이 바로 제 친구 잭이에요.
C : 안녕하세요, 잭.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B :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어디 좀 앉아서 얘기 하실까요?
C : 좋아요. 저기 앉죠.

※I'm pleased to : ~하여 기쁘다. roommate : 동숙자. first name : 이름. 성은 last name 혹은 family name이라고도 한다. right now : (지금을 강조하여 한 말) 당장.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312) 966—4050
책: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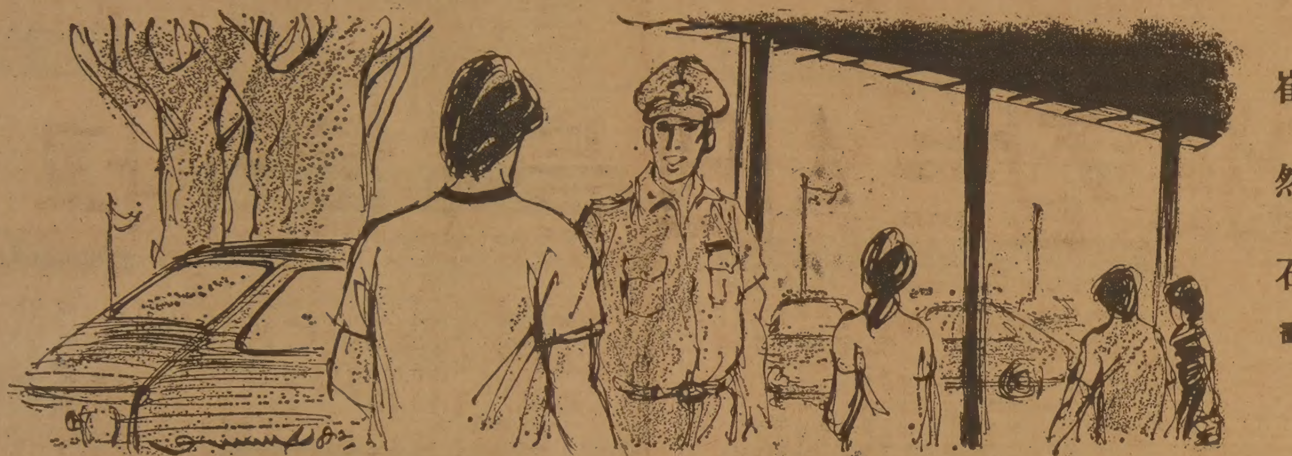
독자만화

◇노 이 로 제
윤빈 (동대문구상봉2동104—59)

◇양 자 택 일
정완주 (영등포구신길7동1362)

連載 소설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88

다혜가 어렵게 시내연수를 하는동안 나는 이 기회에 운전면허를 따두고 싶었다.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면허 없이 운전하고 다니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었다.

필기시험은 문제은행식이어서 문제집을 한번 읽고 합격할 수 있었다.

나는 시험을 치며 어쩌면 필기시험은 법규나 자동차의 원리를 깨닫게 하려는 수단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험이란 그런 뜻으로 통용되는 게 원칙일 것이다. 세속적인 시험지들처럼 야박하지 않아서 좋았다.

코스시험도 합격했다.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통과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장거리주행에서 나는 허망하게 내 운전실력이 무너지는 걸 알았다. 무면허였지만 한번도

지난줄거리

다혜는 몇달만에 만난 총찬에게 의심을 푼다. 별로 해명할 길이 없는 처지였다. 다혜는 운전면허증을 총찬의 기지와 장난으로 따냈고 번역료를 받아 중고차를 구입했다. 시내연습을 했지만 교통질서의 최악의 도시에서 보통 고역이 아니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뒤 유리창에 초보운전 딱지를 떼어내고 붉은 매직잉크로 〈좀 봐줘유. 씨!〉라고 써붙였다.

답보다 운전실력이 미숙하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

『면허장 차는 똥차다.』

『꼬투리를 잡으려는 서험이지 면허증을 내주기 위한 시험장은 아니다.』

『시험관의 마음에 맞는 운전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면허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들으며 나는 내가 정말 똥차나 시험관의 비위를 맞추지 못해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아니었다. 내가 떨어진 것은 운전대를 마음놓고 잡았었다는 자만심이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붙합격된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자만심이라는 걸 알았다.

『당신, 엇그제 난리치던 사람 아뇨?』

시험관 제복의 깃에는 잎사귀 계급장 두개가 달려 있었다. 다혜를 탑격시키기 위해 장난질 치던 걸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떨어뜨린 겁니까?』

『당신은 운전을 너무 잘해. 시내 갖다놓으면 일급일 거요.』

『그런데 왜 떨어뜨립니까?』

『당신 생명을 구해주고 싶어서요.』

『뭐요?』

『담에 오소.』

시험관이 피식 웃었다. 나도 웃고 말았다. 내가 운전 실력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합격시켜 주지 않겠다는 그의 말이 충격처럼 뒤통수를 때렸다. 모처럼 괜찮은 경찰관을 만난 기분이었다.

나는 돌아서 나오다 말고 거수경례를 붙였다. 경찰관이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다.

그 길로 다시 서류를 만들어 넣었다. 규정상 재시험에 응시하려면 이것저것 날짜를 감안해 보아도 한달정도 걸렸다. 나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만큼 참을성을 길러주지 않았다. 무공스님한테 참을성을 배운것은 다른 경우였다.

3일 후에 나는 다시 면허시험장으로 갔다. 그 경찰관이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고 씨익 웃었다.

『올라 줘도 좋습니다.』

내가 큰소리로 대답했다.

내 차례가 되었지만 뒤사람에게 양보하며 그 경찰관 차를 타기 위해 기다렸다. 내가 뒷좌석에 올라타자 뒤를 흘끗 쳐다보고 말했다.

『또 떨어질텐데 왜 이차를 타죠?』

『언제 붙더라도 붙을 거 아닙니까?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겠읍니다.』

『3일 전에 떨어진 사람이 또 온다는 건 규정위반이란걸 아쇼?』

『압니다.』

『그런데 또 내 차를 타는 이유가 뭐요?』

『다른 차 타고 면허증 받으면 재미가 없겠읍니다. 아저씨한테 꼭 면허증 받을 참입니다.』

『난 면허증 주는 사람 아니오.』

『그렇게 될 겁니다.』

『차암, 되게 물렀네.』

앞 사람이 떨어져서 중간에 회차되었다. 나는 출발선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맞으면 떨어뜨리세요.』

『내 마음 안내킨다고 떨어뜨리는 게 아니오.』

『그럼 실력이 모자란다 생각되면 봐주지 마십쇼.』

『그렇게 자신있소?』

『내 오집니다.』

『어디 오기 한번 봅시다.』

자동차가 경쾌한 코스를 돌아 합격선까지 왔다.

『내가 졌소.』

『그러실 줄 알았읍니다.』

장난감을 보면 그 나라 미래를 알수있다는 말도 있다

『부탁 하나 합시다.』

『그러시죠. 아저씨 얘기라면 다 들겠읍니다.』

『합격은 시켜주겠소. 면허증은 보름정도 기다렸다 찾아가쇼.』

『왜요?』

『사실은 아까 당신이 내 차 탈 때 거절했어야 옳았소. 모르면 몰라도 알고 있는 마당에 그냥 태운 게 잘못이었소. 그러니 보름정도 기다려 달라 이거요.』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소.』

『그러겠습니다.』

『고맙소.』

나는 합격증을 받아가지고 나오며 기분이 썩 좋았다. 그 경찰관이 아직도 잎사귀 두 개밖에 달고 있지 않다는 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나는 평소에 경찰관 제복만 보아도 알레르기처럼 돌기가 돋는 것 같았다. 어린 나이에 경찰관에게 시달린 경험 때문이기도 했지만 내 뇌리속엔 지팡이로 보이지 않고 몽둥이로 보이는 잠재의식이 숨어 있었다. 사람들은 괜히 경찰관 제복을 싫어하는 것 같았다. 물론 괜히는 아닐것이다. 그동안 국민들 가슴에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건 천하가 아는 일이었다.

온주 누나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눈인사만 했다. 나는 목욕탕에 들어가 샤워를 끝내고 나왔다. 온주 누나는 그 때까지 계속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수다 떠는 거 보니까 과부는 과부다. 무슨 전화를 그렇게 오래 걸어?』

그래도 온주 누나는 눈만 흘겼지 계속 전화기를 잡고 있었다. 방하는 계집애와 윤정이가 소파에 쪼그리고 앉아서 온주 누나의 전화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윤정이가 적지를 짓게 새워 입술을 가리켰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다. 온주 누나는 뭐 심각한 투로 말하고 있었다. 윤정이에 얽힌 얘기였다. 윤정이가 고전무용에 소질이 있어 꽤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주는 누나였다. 상장과 트로피가 많아서 윤정이가 보통 소질은 아닌 것 같았다. 장구와 북, 족두리와 부채, 세관 고은 한복과 장신구들, 고전무용에 필요한 소도구들이 많았다.

나는 윤정이를 데리고 이층으로 올라갔다.

『무슨 일 생겼니?』

『상훈은 몰라도 돼.』

윤정이가 제법 의젓하게 말했다.

『내 일 같던데?』

『그렇지만 난 몰라.』

『상훈한테 말 못할 것도 있니? 엄마가 속상해 있던데. 무용경연대회 나가서 상 받잖니? 그것도 금상 받았는데…。』

온주 누나가 하는 얘기를 갖추며 보면 윤정이가 금상 받은 일 때문에 잡음이 생긴 것 같았다.

『엄마, 자꾸 속았대.』

『속다니, 왜?』

『엄만 내 말 안들어서 그래. 선생님한테 잘 안보이니까 그랬잖아머. 다른 애들은 봉투도 갖다주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너무 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분명히 네가 금상 받았잖니? 실력 있어서 받았으면 그만이잖아.』

『다른 애들도 다 받은 걸 머.』

『어떻게 다 받아?』

『우리학교 애들 다 상 받았대 뭘.』

『그러니까 속았대잖아.』

온주 누나가 언성을 높이는 이유를 대충 알 것 같았다.

『금상은 너 혼자 아니니?』

금상이면 내 상식으로 한 사람만 받는거였다. 1등을 두 명씩이나 주는 경우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없는 법이었다.

『아냐. 우리 학교만 네명이 금상 어때.』

『전국경연대회 아녔니?』

『엄마가 다른 학교에 알아봤는데 금상받은 애가 다른 학교에도 많대.』

나는 더 묻고 싶어도 윤정이가 가슴아파할 것 같아서 더 묻지 않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윤정이가 며칠 전에 받아온 금상 상장과 메달이 응접실 옆에 진열되어 있었다. 윤정이가 그동안 받은 상장과 트로피들 보다 오히려 멘시가 있게 생긴 상장과 메달이었다.

세계문화협의회라는 단체이름도 거창했지만 다른 상장과 달리 금박지와 영문판의 상장까지 따라붙는 것이 퍽 권위가 있는 것 같았다. 그런 권위 있는 단체에서 세계적인 행사로 벌인 무용경연대회가 속임수였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영국, 독일등지의 어린이들까지 다채롭게 출전하여 무용과 음악, 미술등 예능솜씨를 겨루는 대회라고 했다. 윤정이가 그런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는 게 대견스러워 내가 인형을 선물로 주기까지 했었다. 세계문화협의회에서 만든 팸플리스트를 보면 십수년이 넘게 그런 대회를 치렀다고 대회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 고문이나 심사위원들, 협의회 회장단이나 후원하는 단체들은 모두 굵직굵직한 인사나 단체들이었다.

온주 누나는 아직도 전화기를 붙들고 상대와 얘기를 하고 있었다. 대꾸하는것을 들어보니 윤정이 말보다 더 심각한것 같았다.

전화를 끝낸 온주 누나는 몹시 언짢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기분 나쁜 표정을 평소에는 보기 어려웠었다.

『누나, 왜 그래?』

『한심해서 그런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니?』

온주 누나는 흥분해 있었다.

『말해야 알지? 뭐가 잘못된 게야?』

『세상이 말세가 되려나 보다. 배우는 애들 한테 사기치는 게 버젓하게 움직이니 말이다. 그것도 큰 문화단체고 운영자도 큰소리치는 사람이 말이다.』

『누난 순진해서 그래. 세상에 여면 곳엔 줄 알거나 해? 배우는 학생들 얽어서 뱃속 채우는 부류가 어디 한두군데 줄 알아? 우리나라 장난감이나 아이스크림이라고 속여 파는 얼음과자 만드는 작자들 두성어 몰라? 하나님도 두 손들 친구들이 수두룩 하다니까.』

예 말은 별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장난감을 보면 그 나라 어른들이 그 나라의 미래를 걸머진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안다는 말도 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즐겨 먹는 것들을 이용해 치사하게 돈벌이 하는 부류를 보면 그 나라의 교육을 점작할 수 있다는 말도 있다.

그런 부류들은 어린이들을 점단적으로 살해하려는 음모자인데도 이나라 법이 무른 건지 어디면 그런 부류들은 돈이 많아서 법망을 피해자는 기술이 있는 것인지 몰라도 펜펜 살아서 갖은 재미는 다 보고 사는 것 같다. 서민이 조금만 잘못해도 옭아넣는 일에 이골이 난 양반들도 돈앞엔 한말도 없는 것 같다.

코끼리가 밟아도 끄떡없는 장난감을 외국사람처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다. 하루만 가지고 놀아도 못쓰게 되거나 속상하게 되어버리는 장난감을 만들어 파는 재 정신이 아닌 친구들이나 그런 걸 두 눈 뜨고 보면서 국민의 일꾼입네 하는 자들이 침묵하거나 어상한 짓을 뒷구멍으로 해치우는 건 도대체 어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무슨 외국글자 늘여놓는 건 쪽발이한테 배운 짓일 것

설탕물에다 색깔 섞고 요리 조리 장난질쳐서 아이스크림 흉내를 내놓고 마치 선심이나 쓰듯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빙과류라는 작은 글씨를 넣어 놓는 상혼은 왜 눈감아 주는걸까? 거기다 무슨 외국이름자를 늘어붙여놓는 버릇은 쪽발이들한테 배운 짓일것이다. 대개 그런 부류들은 쪽발이라면 발톱때라도 핥아먹을 부류들일 것이다. 그런 친구들은 제자식 어름도 아마 서양식으로 메리, 도그, 워리, 쫑쫑, 끼끼… 그렇게 지어줬을 것이다.

온주 누나는 고개를 흔들며 분해서 못견디겠다고 했다.

『말해봤자지만… 이건 너무 하잖다.』

『그러니까 말해보란 말야.』

『윤정이가 타온 금상이 속은 거였어. 세계문화협의회란 데가 뭐하는 곳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자녀를 데려다가 전원에게 상을 주는 것까진 이해할수 있지만 우리나라 아이들 잔뜩 데려다 참가비 몇만원씩 받아 먹고 마구 상장을 뿌렸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니?』

『참가비 얼마였어?』

『4만원씩 냈단다.』

『그런 걸 어떻게 알았어?』

『윤정이네 학교에서 단체무용까지 10명이 출전했는데 모두 상장 받았대. 윤정이가 금상이고 나머지도 은상, 동상, 특별상… 그런식였대. 어상하다 싶었는데 다른 학교도 모두 그런 모양야. 그래서 몇군데 확인해봤어. 내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잖겠니? 출전했다 하면 다 상을 준 모양야.』

『그 친구들 장사 잘 했겠네. 4만원씩 천명만 받아도 4천만원 아냐? 문화 장사꾼한테 걸린 거구만.』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 무용선생이 이상하게 졸라대는 거야. 한 학교에서 열명 이상 출전할 수 없다면서 자꾸 내보내래. 시상식도 없었어. 그냥 개인이 며칠 몇시까지 어느 호텔로 나오라고 해놓고 상장하고 메달만 내주는 식이었어.

먼저 같이 있던 동료 선생중에 무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출전시켜주는 머리수에 따라서 봉투까지 주는 모양야. 그 선생은 그런걸 아니까 거절한 모양야. 열명이 넘으면 소문이 날테니까 제한하는 모양이지.』

누나가 흥분할만한 일이었다. 온주 누나는 자세하게 알진 못하지만 대충 세계문화협의회란 단체와 선생들이 가담한 사기극을 설명해 주었다.

『누나, 솔직하게 말해서 선생들도 일급지니 금싸라기 학교니 해서 떽쓰고 돈 써서 교육을 빙자해 돈 벌러 다닌다는 말 있던데?』

윤정이가 다니는 학교가 이른바 일급지였고 돈 봉투 흥청거리는 학교라는 말이 있었다. 온주 누나도 가끔 봉투들고 좇아가는 눈치였다.

『그거야 머…。』

온주 누나는 말끝을 흐렸다.

『나도 다 알아. 누나도 애를 가르친 사람였고 이젠 별 수 없이 봉투들고 좇아다니는 여자가 됐다는 걸.』

『재는…。』

『누나 입장에서 할 수 없겠지. 혼자 사는 여자라고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도 싶겠고 윤정이가 부반장이라도 계속하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지. 윤정이가 그런 소리 하는 걸 나는 들은 적이 있어. 엄마는 선생님을 자주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부반장밖에 못한다고. 반장하는 애 집은 부자고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라 엄마가 아예 거 죽어서 그런다는 거야.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난 알잖아. 윤정이 친구들도 그러더래 뭘. 누구 엄마는 매달 얼마씩 내고 누구 엄마는 선생 생일날 행운의 열쇠 해줬고 누구네는 기름값 대준다고. 누난 선생 노릇까지 한 여자야. 누나도 그런다는 걸 모를줄 알았어? 제발 내 누나만은 안그런 여자였으면 좋겠어.』

온주 누나는 고개를 숙였다. 피로운 표정이었다.

『윤정이네 학교의 어떤 선생은 노골적으로 봉투를 요구한다는 걸 알아. 양심적인 선생도 많지만 비열한 선생 숫자가 너무 많단말야. 누나같은 여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선생이 늘어나는 거야. 윤정이가 컸을 때를 생각해봐. 세상은 돈 가지고 해결하는 거라고 믿을 거고 선생이란 모두 돈독 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거 아니겠어?』

『그게 그렇게 안되더라.』

『왜 안돼?』

『부모 마음이란게 어디 그러니?』

『이해는 돼. 그러나 이건 너무 하잖아. 윤정이네 학교 2학년 담임하는 강선생인가 하는 여선생 소문 들었지? 애들이 모두 얘기할 정도면 그게 어떻게 선생야. 누나만은 제발 그런 여자가 되지 마. 돈 좀 있는 엄마네들이 선생 돈 갖다주는 시합하는 판에 누나가 왜 껴드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

『그만 하자. 내가 왜 내 잘못을 모르겠니. 자식 키우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누나는 힘없이 선생들이 노골적으로 봉투를 요구하거나 봉투를 내놓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만드는 예기를 해주었다. 그런 선생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충격이었다.

하나님. 교육자라고 해서 떨어두는 일만이 미덕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건 더욱 뒤집어 볼 일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땅덩어리가 어찌되려고 이러는 겁니까?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
전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 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저녁6시 이후 전화바람)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K.D.K.Construction Co.
Met. Lic.B4298, Inside & Out
Renovations, Home Repairs,
Carpentry, Dry-Wall
Plastering, Ceiling
Concrete Work, Plumbing
Painting, Wall Papering
Tiles Etc.
921-8163
Mr. Reg. Kimura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담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번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천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준농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도너스숍에서 풀타임 일하실 여자분구함
시간 오전7시-오후3시(월-금)
Victoria Park & Steel (B)499-4459 (R)299-1431

일본식당 웨이트리스 키친헬퍼구함. 특히 한국인 무경험자 환영. 9월말 개업. Finch Subway 5분거리.
전화 : 826-7676(R), 222-1621(B). Mr. 모리

여자 캐쉬어 토·일요일하실분 구함.
오전12시~저녁8시까지. 다운타운.
전화 : 921-0624

유경험자(남자) Helper구함. (Full & Part time 또는 주말)
스카브로지역 거주하시는 분 환영.
대우 우대함. 전화 : 691-8602

풀타임 경험있고 영어할 수 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937 Bay St. 이나, 462 Kingston Rd.로 직접내방바람.

일본식당 남자 키친헬퍼 구함.
전화 : 960-9035

유경험자 여자 Cashier 구함.
Western Area. 내방바람.
261 Scarllet Road at Eglinton Ave. W.

일본음식점에서 일할 키친헬퍼(접시닦는것 포함) 구함.
9월7일부터 일시작. 오후2시30분이후 전화요망. 전화 : 421-6016

가을까지 지렁이 잡으실분.
전화 : 633-5783 Mr.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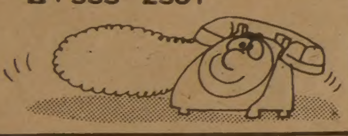
파트타임 캐셔와 헬퍼구함.
15 Queen St. E. 전화: 364-4054
직접 내방바람.

치과에서 일하실여자 Receptionist 구함.
경험있으신 분이면 더욱 환영하며 영어를 자유로 구사하실수 있는 분이어야 함.
전화 : 233-9454 or 233-4888
Dr. Mark Kochman

"봉화농장" 본농장에서는 토론토는 물론 타지방(캘거리, 에드몬튼, 몬트리얼) 교포들에 바쁜 생활에 실질적인 편의와 수요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새 건물을 신설하여 식품가공 업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유한 맛인 각종김치, 깻잎, 고추잎장, 다꾸왕, 짠지무등을 생산하는데 경험과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농장에서 장기 기거하며 수고하실수 있는 여자 약간명 구합니다.
전화 : 1-775-6256 Mr. 강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3871 Lawrence Ave. E.
전화 : 431-7168, 439-6428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프로페셔날 바이올리니스트의 개인지도를 받으실분 연락주십시요. (all level)
Call Mr. Wong 233-4200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저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광고문의, 신청 : 533-2361~4

매매

House Sale or Rent (Special Discount)
위치 : Victoria Park & Van Horne
Det. Brick. 3 Bed Rm. Bung. - Cent. Air Con.
2 Car Gar. with Elect. gar. Door Openner
Mortgage: 1st. $66,000(13%), 2nd: V.T.B.
Sale: $149,000. Rent: $850-$700. 전화 : 494-9679

여자용 여름용 한복 급매
한벌에 125불
전화 : 769-4366. 김 (오후6시이후)

상점 급매 (양도)
비지네스 전부재고품(꽃, 채소, 과일, 잡화류)및 시설일체, 자동차 양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나, 유경험자로도 책임지고 트레이닝 해드림.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으시라.
아스킹 : $10,000
전 화 : 769-5584 (서선생)

615 Bloor St. W 에 위치한 성업중인 식당 매매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새로운 Mall속에 Hamberger & Coffee
20년의 장기 Lease에 Rent : $1,060.
현주며상 : $2,500. 앞으로 6개월내에 $5,000 보장.
주6일 영업(Short Hour). 다운페이 : $5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베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여자분 혼자서 운영가능한 Mall안에 있는 Variety Store 가정형편상 아주 싼 값에 드립니다. (내방 바람)
1250 South Service Rd. Miss. Ont. (Health Food & Cake)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개인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전화 : 656-7753 Mr. 최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5년리스 + 5년옵숀 주매상: $3,500 아스킹: 2만5천불 (이층 살림집 있음) 전화 : 463-8674

Private Sale. 파킹장 구비한 상업지역의 Builing 매매.
모든 Business에도 적합한 좋은 조건의 위치.크기 : 8 Rooms.
아스킹 : $219,000 전화 : 921-9847, 923-2872 (William)

Private Sale (Tailoring Store & Building)
Good Location & Good Opportunity
Phone : 533-3888 (Antonio)

집렌트

방세놓습니다. 565 Pape Ave.
2층 전체 월 : $350
전화 : 591-6863, 438-4519

셋방 있음(1 Bed Rm+Kitchen) $200/M.
9월1일 입주가능. 하이드로 포함. 653A Bloor St. W.
전화 : 533-0168 (1:00p.m.-10:00p.m.) Mr. Kim

아파트렌트

아파트 "Sublet" (다운타운 지역) 9월1일 입주가능.
위치 : Queen St. & Roncesvalles 1 Bed Rm/$406
(하이드로 포함) 전화 : 536-4701 Mrs. 리

2 베드룸 아파트 렌트 $380
(리스 한달반 남았음) 105 Westlodge Ave.
(Queen+landsdowne) 전화 : 531-0960

크레딧·카드를
使用 하세요.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광고문의
☎ : 533-2361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분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핀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 남·녀 컷, 파마전문
•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ANNIE'S BEAUTY SALON
◉남·녀 파마, 컷트, 화장전문, 여드름, 주름살 치료, 메니큐전문, 머리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차편제공 가능, 불란서고급 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퀸×브로드·뷰) 463-9071 Mrs.Lee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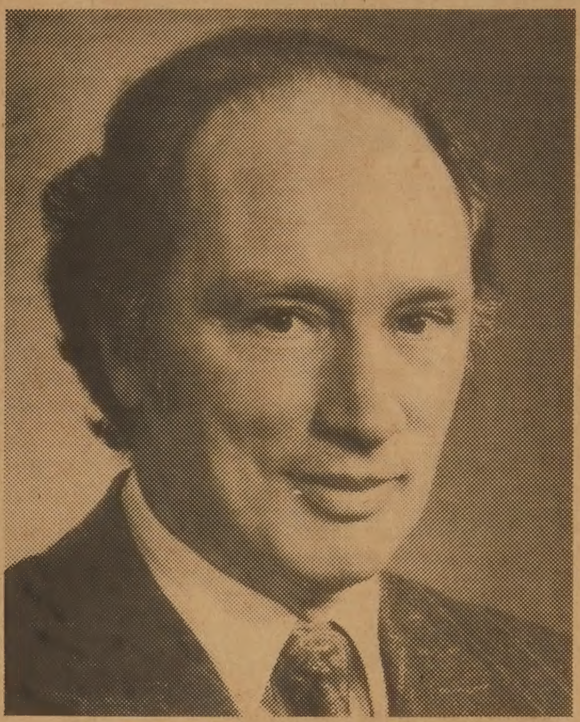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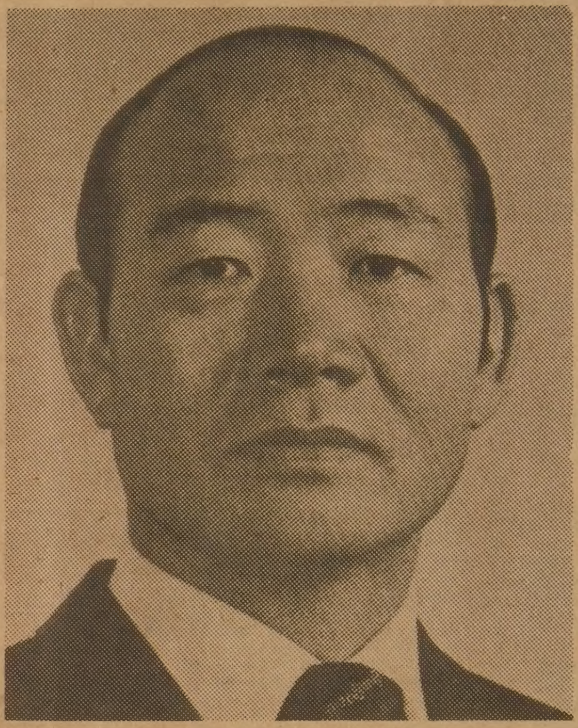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경 축





전두환대통령각하
내외분의 카나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조흥은행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번지

토론토사무소
Suite 1125 Commerce Court North
Toronto Ontario M5L1B9
(416)363-3448/9